

보다
BO DA



BO DA



Vol. 02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부평구문화재단의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의
윤국(가운데, 안덕윤), 윤생(왼쪽, 임하람), 윤미(오른쪽,
이지은), 윤생의 아버지(뒤, 김양훈)가 함께 노래하고 있다.

CREDIT

보다 Vol. 2

발행인 박옥진
발행처 (재)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403-843

편집인 광경전
전화 032-500-2032

편집기획 정영진, 이해진
팩스 032-500-2060

편집디자인 B2
홈페이지 www.bpcf.or.kr

발행일
2016년 1월 1일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보다'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부평구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부평구문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BO DA | 보다

[동사]

1.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2.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

'보다'는 국내외 문화와 예술을 바라보고, 만나보는 소식지이자,
부평구민이 함께 즐기고 감상하는 문화지입니다.



사선

보다

생각

인사이드 부평

미리보다

INFO

CONTENTS

Man from Art	영원한 엔터테이너 윤복희	04
Art & People	포럼 “문화도시의 자생적 운영은 가능한가?”	08
Art Scene	문화적 패러다임으로 세계적 문화도시를 꿈꾸며	12
Look Around	우리 동네의 Moment of Truth를 연구하자	16
Look Inside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선택	18
Viewfinder — 01	음악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잇다, 부평 밴드 페스티벌	22
Viewfinder — 02	예술을 나누는 행복 한마당, 2015 부평예술축제	26
Zoom In — 01	응답하라! 당신의, 나의, 우리의 아름다운 시절	28
Zoom In — 02	아름다운 나눔,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34
Zoom In — 03	통하는 가족이 되기 위한 한 판 배틀, 링 위의 가족	38
Review	부평구립예술단 전국 대회 대상 휩쓸어 外	40
What's next-01	2016년 새해맞이 신년 음악회	45
What's next-02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 부키프	46
What's next-03	커피 한 잔과 함께! 브런치 콘서트	47
Calendar	2016년 상반기 부평구문화재단 프로그램 일정	48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안내		58



“이제 조금 음악의 맛을 알 것 같다”

영원한 엔터테이너 **윤복희**
with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인터뷰 **임진모** | 정리 **편집부** | 사진 **전석병** | 장소 **Cafe MaMie**

듣던 이가 모두 놀랐다. 윤복희가 생애 첫 단독 콘서트 투어를 하고 있다고 해서다. 데뷔 65년 만에 단독 콘서트라니. ‘이제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윤복희는 지난해 말, 해마다 최고의 아티스트의 무대로 꾸며지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더베스트(The Best)공연 무대에도 가수 최백호와 함께 올랐다. 더 설명해서 무엇할까? 전설의 그녀가 ‘이제 노래 좀 해 볼까?’하고 걱정하고 오르는 무대라는데. ‘더베스트’ 공연 직전 윤복희를 만났다. 그녀는 ‘음악도시’를 향한 부평구의 비전에 대해서도 말했다. 윤복희는 1960년대 초반 소녀 스타로 떠오르면서 부평 에스컴시티 영내 무대에 여러 차례 선 부평 대중음악 씬의 산 증인이다.

65년을 하루 같이 새로움으로 살다

임진모(이하 임)

65년간 멀티 엔터테이너로 활동해 오셨죠?

윤복희(이하 윤)

멀티엔터테이너가 어디있어요? 모든 엔터테이너는 멀티예요. 엔터테이너라면 모든 걸 해야 하는 거죠.

임 무대를 망라하셨다는 이야기죠. 65년을 한결같이 활동해 온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열정 아닐까요?

윤 열정이라기보다 내게는 새로움인 것 같아요. 올 4월부터 전국을 돌며 하는 콘서트도 새롭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해요. 데뷔 65년 만의 단독 콘서트거든요.

임 한국 대중음악계의 전설이시잖아요. 데뷔 65주년이라니... 그런 사람으로서의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나만큼 한 사람 나와 봐!’ 하는....

윤 그건 숫자에 불과하고 이렇게 있게 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이에요. 나를 무대에 서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거죠. 축복이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의 윤복희를 있게 해 준 미8군 무대

임 65년 전, 첫 데뷔가 미군 부대 클럽에서였죠.

윤 부평, 동두천, 오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임 부평에서 공연도 했죠?

윤 그럼요. 하지만 40명 단체 쇼 팀이 차를 타고 들어갔다가 쇼가 끝나면 또 차 타고 나왔기 때문에 부평에 대한 자세한 기억은 없어요. 에스컴시티 영내의 ‘서비스클럽’ 무대에 여러 차례 섰었죠.

임 당시 꼬마 가수 아니었나요?

윤 나는 가수인 적이 없었어요. 엔터테이너지.

임 하하. 알겠습니다. 호칭 수정하겠습니다. 엔터테이너. 그럼 엔터테이너로서 부평에선 어떤 노래를 하셨을까요? 아, 루이 암스트롱 모창하셨죠?

윤 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Hello Dolly’... 루이 암스트롱의 히트곡이 바뀔 때 나도 노래를 바꾸었어요. 그 뿐 아니라 엘라 피츠제럴드, 팝 가수 브렌다 리 등, 세 사람을 모창했어요. 미8군 공연은 9살에 시작했죠. 당시에 난 톱이었어요. A1쇼를 하는...

임 출연료 기억나세요?

윤 6만 원이었어요. 돈 가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받아서 집을 샀으니까...

임 6억 원 정도 가치였을 지도 모르겠네요.

윤 나는 AA클래스였어요. 극장 공연장, 장교 클럽 쪽에서 활동했고 사병 클럽엔 안 갔죠. 패티킴 언니도 그 무렵 데뷔했고, 최희준, 유주용 씨... 유주용 씨는 을지로 6가 장교클럽 전속이었죠. 50분 공연할 때 밴드가 일곱, 무용수가 일곱, 어른 여성 솔로 가수 어른, 어른 남자 솔로 가수... 무용하는 분들은 토슈즈 신고 재즈

댄스를 댔어요. 내가 속한 A1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였는데 뮤지컬 레퍼토리가 많았죠. 재즈하고 뮤지컬이 메인이었어요. <남태평양> 중에서... <오페라호마> 중에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중에서... 이런 식이었죠.

임 장교 클럽에서는 재즈하고 컨트리를 주로 연주했던데요?

윤 컨트리는 사병 클럽이었죠. 신중현 씨가 거기서 기타를 쳤을 거예요.

임 부평은 미8군 부대 중에서도 상당히 큰 편이었죠. 미8군 무대에서 우리 음악가들이 실력을 연마하고, 무대에 서고 하면서 우리 대중음악이 컸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윤 그럼요, 그럼요.

임 저는 부평을 ‘한국 대중음악의 성장기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윤 ‘한국 대중음악의 성장기점’ 중에 한곳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임 당시 미8군 무대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미국의 스탠더드 팝이니 재즈니 하는 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미8군 클럽이라는 공간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음악 장르가 굉장히 적었을 것 같습니다. 트로트 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윤 트로트는 기초가 일본 가요 엔카예요.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듣던 우리 가요는 대부분 ‘왈츠’였어요. ‘타향살이’, ‘황성옛터’... 김정구, 고복수, 백년설, 장세정, 신카나리아 등은 지금의 소위 ‘뽕짝’을 부르지 않았어요. 알고들 계셔야 해요.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을 했기 때문에, 음악은 뭐든지 다 알아야 했어요. 캐스팅되었을 때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재즈적인 것, 국악적인 것, 팝적인 것, 발라드, 이런 모든 색깔이 다 나오게 해야 했어요.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나의 위치요? 나는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아요. 음악이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한다면 (나뭇가지가 아니라) 나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산업적인 개념의 가수가 아니라 무대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임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 아닌가요?

윤 그렇죠.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임 오늘날의 윤복희를 만든 데는 미8군 공연 경력이 큰 밑바탕이 되었지요?

윤 그럼요. 쇼를 본 미국 군인이 본국으로 돌아가 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루이 암스트롱이 한국에 왔을 때 나를 찾은 거예요.

임 62년의 일이죠? 그 때 신문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꼬마 가수가 어찌고...’

윤 그랬죠. 그 후 매년 루이 암스트롱하고 함께 공연을 했으니까요. 최초의 한류스타요? 아니에요. 내 앞에 김시스터즈가 있었으니까요. 59년에 김시스터즈가 먼저 미국에 진출했어요. 처음 라스베이거스 갔을 땐 김시스터즈 언니들과 살았어요. 김해송 선생님(김시스터즈의 아버지, 작곡가)하고 우리 아버지(윤부길, 작사가, 성악가, 악단장, 뮤지컬 연출가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고 친하셨으니까. 아버지는 1942년에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극단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예요. 그래서 내가 다섯 살 때 아버지가



쓰신 뮤지컬인 <크리스마스 선물>로 처음으로 무대에 서게 된 거고요.

공항 미니스커트 사건은 다 거짓말

임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죠?

윤 67년에 한국에 돌아오긴 했는데 활동을 하러 온 건 아니었어요. 오빠(윤항기)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왔는데, 내가 사 준 집도 다 팔아버리고 ‘키보이스’라는 연예인이 되어있더라고요. 집이라도 지어주려고 시민회관에서 리사이틀을 했어요. ‘Stop the World — I Wanna Get Off’ 중에서 ‘What Kind of Fool Am I?’를 부른 기억이 나네요. 광대 분장하고 마술도 하고...

임 그 때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인가요?

윤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김포공항에 2월 초, 새벽 3시에 내렸는데(그런 사진을 어떻게 찍나요?)... 신문에 난 사진은 아마 영화에 출연했을 때 찍은 걸 거예요. 그걸 광고에 쓴 거죠.

임 나이 들어 부르니까 더 맛이 난다, 하는 곡이 있다면요?

윤 ‘여러분’이에요. 70년대엔 제대로 부를 무대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콘서트할 때 재즈 식으로 자유롭게 불러보니까 아주 좋네요. 그

노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곡을 붙인 노래라 100% 가스펠이에요.

임 그런 노래를 코미디언이 흥내 내고, 임재범 씨가 MBC <나는 가수다>에서 불러 슈퍼스타가 되기도 했죠.

윤 난 임재범 씨 노래 좋았어요. 사실 내가 부른 뜻하고는 완전 반대였지만, 그 노래가 힘을 주는 노랜데 당시 임재범 씨 아내가 암이 걸리고 본인도 굉장히 아팠다고 해요. 다만, 많은 친구들이 잘 모르고 1절만 부르는데, 노래를 반만 부르면 안 돼요. 얼마 전에 KBS <불후의 명곡>에 나와 달라기에 ‘편곡은 마음대로 하되 1절, 2절 가사는 그대로 노래하라’ 는 조건을 걸었어요.

임 <불후의 명곡>에서는누가 제일 잘 하던가요?

윤 손승연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손승연이 부른 노래 ‘Move’는 예전에 이선희에게 주려고 했던 노래예요. 그런데 손승연이 그날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 부르는 것도 봤는데 그 노래도 제일 잘 불렀다고 생각해요.

임 언제 쓰신 곡인가요?

윤 1980년 아니면 1981년에 썼는데 발표는 안했어요. 당시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조상 탓이나 부모 탓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좀 움직이자. 유명해질 생각도 하지 마라,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강함을 보이려고도 하지 마라.

임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윤 다 뜻 깊죠. 그 중에서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아직 감옥에 있을 때, 미국에서 그 분 석방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외교사절단을 보냈거든요. 퀸시 존스 같은 톱 뮤지션들과 오케스트라, 가수를 드림팀으로 짰는데 두 달 동안 함께 갔었죠. 1966년에는 <밥 호프 쇼>의 멤버로 전쟁 중이었던 베트남에 가기도 했고.

칠순, 이제야 음악의 맛을 알 나이

임 요즘 콘서트를 하고 계신다니 건강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건강이 곧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건강은 잘 모르겠지만, 올해 들어 느낀 것이 “이제 음악의 맛을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완벽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미국에서 대단한 분들의 공연을 봤기 때문인지, 어떻게 한 두 곡 가지고 콘서트를 하나 했기 때문에, 콘서트 열자는 이야기를 삼십 년 전부터 들어왔지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엔 조금 더 나아지겠죠. (웃음)

임 콘서트 하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것 같네요.

윤 정말 그 말이 딱 맞아요.

임 12월에 부평아트센터에서 최백호 씨와 <더 베스트> 무대에 서시죠? 그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어떤 건가요?

윤 그동안의 히트곡, 재즈, 팝, 가스펠, 국악 등, 모든 레파토리를 다 보여줄 생각에 요즘 머리가 아파요. (웃음) 공연 시간이 조금 짧아 아쉽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임 음악의 즐거움, 늘 새로운 윤복희를 보여주는 무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주먹을 쥐어 보이며) 노력할게요. (웃음)

보다



음악·융합도시 부평으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질문

“문화도시의 자생적 운영은 가능한가?”

정리 편집부 | 사진 이선호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평구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방향성 모색을 위하여 부평구문화재단이 '2015 부평문화포럼'을 열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이번 포럼은 '문화도시 사업의 정책 방향 및 사례', '문화도시의 자생적 운영은 가능한가?', '왜 '부평 음악·융합 도시'인가?', '문화도시 부평의 미래'라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중 '문화도시의 자생적 운영은 가능한가?'는 주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진행된 두 번째 포럼을 지상 중계한다.

시간	2015년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장소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사회자	김유정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팀장)
발제자	이한호 (주)쥬스컴퍼니 대표)
토론 참석자	박은실 (주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좌장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
토론자	김주연 (홍익대 산업디자인학부 교수)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대표)

1부 자생력과 지속성의 탐색

두 번째 부평문화 포럼 '문화도시의 자생적 운영은 가능한가?'는 김유정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1부 시간에는 이한호 (주)쥬스컴퍼니 대표의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방안', 박은실 주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문화도시 지속방안' 발제로 문화도시 정책과 현황, 사례를 풍부하게 짚어볼 수 있었다.

발제 ①
문화도시의 지속성 확보 방안
이한호 : (주)쥬스컴퍼니 대표

일단 문화도시란 무엇인가 정의를 짚어보고 가야겠다. 문화도시란, 도시민의 문화적 삶이 도시계획과 경영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도시를 말한다.

또한 '자생력'이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살아 나가는 능력이나 힘'이란 뜻이다. 그러나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자생력 확보란 '지향점'이지 결과가 아니다. 결국 문화도시 사업의 자생력 확보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하고, 도시 정책 결정자들과 시민의 의지로 자원을 투입하여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으로 문화도시의 지향점을 '지속' 추구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할 것이다.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가치와 철학을 꾸준히 논의하고 상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역의 정체성에 기반하되,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도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로서의 문화도시 가치와 철학을 초기에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평구 문화도시 사업의 목표는 '적정해야' 하며, 미군부대 반환 예정지라는 물적 영토가 주는 희망과 장기적인 비전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부평다운 문화를 다시 싹 틔우는 시기'라는 목표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브랜드로서의 문화도시도 중요하다. 한 번 주목받으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특화지구사업 기간 동안 부평 문화의 브랜드 리얼리티와 외부가 평가하고 있는 부평의 브랜드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향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오늘과 같은 공유의 시대에 그 브랜드 즉 '문화자산'은 남들이 퍼갈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진중한' 것은 나눠 쓸 수 있도록, '가벼운' 것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애매한' 것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 때, 문화도시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

가치와 철학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시스템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적 인력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인력 유입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창조적 인력들은 그들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파트너로서 인식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문화도시의 비전과 로드맵은 시 담당부서나 문화재단의 일부 업무로 추진되기 보다는 부평구의 장기 전략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와 효율적인 민관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재단의 역할과는 구분되는 문화도시 협력 기구를 구성하여 신규 비즈니스 발굴과 운영, 지역 전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문화적 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뱅크로서 기능하게 하여야 한다.

몇 가지 더 제안하자면 현재 부평구 문화특화지구 사업 추진은 상권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상권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문화도시 성장의 재원으로 다시 공급될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정별 단일상품으로서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코드'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문화특화지역 사업 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개별 도시가 해낼 수 없는 가치효과 발현과 정책의 지속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부평구가 문화도시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문화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구상하겠다는 문화 계획적 접근에서 부평구가 시스템과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성은 그 이후에 저절로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한호 (주)쥬스컴퍼니 대표



발제 ②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문화도시 지속방안
박은실 :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문화도시가 자생한다는 것은 너무나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일단 ‘문화도시의 지속 방안’에 대해 살펴봄과 사례 속에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하자.

우선 살펴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디자인, 민속예술, 문학, 미디어예술, 음악, 음식, 영화 등 주제 분야를 가진 도시를 선정한다. 대체로 인구 20만~30만 명에, 위의 주제 분야를 이미 산업 기반으로 삼은 도시들이다. 예산 지원은 없다. 이미 문화 주제를 발달시켜 산업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도시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서로 돕고 발전하라는 뜻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려면 주제 분야가 해당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사업이어야 하고, 주제 분야의 사업 정책 실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장기적이고 확고한 정책의지가 있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세부 지표로는 최근의 창의적 산업 종사자 수, 직업 종류, 5년간 창출된 직업 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등이다. 이러한 지표를 점검하면 향후 문화도시 추진에 있어서 부평에서 부족한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유럽문화수도(ECOC)는 1985년, 그리스 문화장관 멜리나 메르쿠리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처음엔 정부 차원의 ‘문화도시’ 선정 사업으로 시작하여 사업 2단계인 1999년부터 유럽연합 차원의 사업이 되어 재정지원이 시작되어 현재 3단계에 이르고 있다.

사업 기간이 오래된 만큼 아주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글래스고, 밀, 리버풀, 에센, 헬싱키 등 인구 30만~60만 명 정도의 도시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인천 부평구가 56만

명이니 인구 면으로만 보면 문화도시를 추진하기에 적절한 것 같다. 3단계 사업 추진 시 도시 선정 기준은 유럽 차원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도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딱 두 가지다. 예로서 2013년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마르세유의 유럽 차원에서의 아이덴티티는 ‘지중해 문화’였다. 평가 보고서 중 놀라웠던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다. 74%의 시민이 참여했고 참여자 중 83%의 시민이 1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르세유가 얼마나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결국 문화도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은 창조 생태계 조성에서 나온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것은 통합적인 문화계획을 가지고,



수고 문화대인문대학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박은실

민관 거버넌스 방식을 고민하며, 국내 많은 문화도시간 초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가능할 것이다.

창조생태계 조성의 핵심은 창조인력 유치다. 창조 인력이 선호하는 환경은 시장 기능이 있고 독창적(original)인 지역이며, 문화 환경(거리와 골목)과 관용(tolerance)으로 오픈되어 있으며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내용들이 문화도시 부평에 주는 시사점은 일단 문화도시 조성의 명확한 목표가 인천과 부평 지역의 유·무형 자원 및 사회문화의 조사 바탕 아래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문화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은 수도권 중 유일하게 인구 줄지 않는 지역으로 문화도시 추진에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주력해야 할 정책을 물었을 때 문화 여건 개선은 10.8%, 생활 여건 개선을 38.4%가 꼽았다. 이를 보아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도시’에 대한 설득이 우선적이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 같다.

2부
가치와 철학, 정체성으로서의 문화도시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은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은 “부평과 인천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다만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김주연 홍익대 산업디자인학부 교수는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가는 문화도시의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면서 “시민의 행복과 만족에 가치와 철학을 세우고 도시를 지속해서 발전시키다 보면 그 결과로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부평의 진정성 있는 가치와 철학을 사업 추진의 중심에 놓고, 그 철학에서 시작해서 방법(How)을 도출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문화도시가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대표는 “부평은 2000년대 초반까지 정체성이 거의 없는 도시, 생산지 배후 도시 및 서울의 베드타운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면서 “문화예술로 지역을 재구성해야 할 절실함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지역주민들 개인의 실제적이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욕망을 자극하고 실천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했다.

1부 발제자로 나섰던 이한호 대표는 “결국, 시티즌십이 있어야 문화도시는 성공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쉬운 비전 키워드를 찾아내어 시민들이 ‘부평이 어떤 도시다, 어떤 도시가 되려고 한다’ 하고 두세 가지 문장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은실 교수도 “부평 시민들이 얼마나 정주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평구의 자산은 무엇인가, 인천과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등의 시민들의 합의가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는 부평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지역주민들이 다수 참여했다. 조각가로 활동하는 최금화 씨는 “부평구가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먼저”라고 의견을 내 놓았다. 화가 임종호 씨는 “지금까지 부평은 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로 풍물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왔기 때문에 음악 융합도시로서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시민이 토론의 주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질문을 던졌다. “이상적으로 자생적 운영이 가능한 도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지역주민, 행정청, 전문가가 어떻게 묶여야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이한호 대표는 “근자재 원자재, 지역민들이 부평구를 찾는다면 먼 곳에서도 찾아올 것 같다”고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박은실 교수 또한 “납득할 만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설득할만한 논리를 적극 펼 동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나온다.”면서 지역민들과의 가치 공유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보도**



좌로부터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 김주연 홍익대 산업디자인학부 교수,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대표

문화적 패러다임으로 세계적 문화도시를 꿈꾸며

박육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

무던히도 더웠던 지난 8월, 부평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앞두고 문화도시로 재탄생한 유럽의 몇몇 도시를 탐방하였다. 영국의 리버풀, 셰필드 그리고 독일 루르지역의 도시들. 모두 산업혁명 이후 철강과 석탄을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이끌며 번영을 누리다가 도시 침체의 기나긴 길을 걸었던 공업도시다. 그러나 다시 '문화'를 통해 도시가 지닌 미래 동력을 성공적으로 되살려낸 문화도시, 창의도시, 혁신도시다.

리버풀(Liverpool) - 물락한 항구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우리에게 축구와 비틀즈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도시 리버풀은 영국의 3대 관광도시답게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머시강변을 따라 개발된 앨버트 독(Albert Dock)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미술관인 테이트 리버풀과 비틀즈 관련 자료의 보고인 비틀즈 스토리, 머시사이드 해양박물관, 국제노예박물관, 워커아트갤러리 등은 리버풀의 대규모복합문화단지로서의 명성을 실감하게 한다.

리버풀은 18세기 유럽 및 신대륙과의 교역을 시작으로 노예 무역항을 이루며 중요 무역항으로 명성을 떨쳤으나 2차 세계대전 시 심한 폭격을 받아 황폐화되었다.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가난, 실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자 1960년대부터 항구가 축소되고 산업 시설들이 폐허화되면서 점차 슬럼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리버풀은 지난한 쇠락의 역사가 무색할 만큼 놀라운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리버풀은 황폐한 공업도시, 가난한 철강도시에서 어떻게 지금의 문화도시, 관광도시로,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ity)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리버풀은 쇠퇴한 도시를 살리기 위해 1980년대부터 지역의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머시사이드개발공사 설립을 시작으로 문화중심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관광-레저 중심의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앨버트 항구 재건사업이었고, 시민들과 문화도시 육성 계획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2000년대에도 이어져 매년 수 백 개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이었다. 리버풀시는 문화중심도시 육성 사업의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Liverpool First Workbook을 발간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앨버트항 재건 이후 리버풀은 영국의 3대 관광지로 변모하였으며 새로운 문화산업을 창출하였다.

특히 비틀즈를 활용한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이 돋보인다. 비틀즈 멤버 생가 보존, 비틀즈 박물관(Beatles Story) 건립 등 비틀즈와 관련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비틀즈 축제는 매년 전세계에서 최고 25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다. 또한 비틀즈 멤버의 생가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을 활용하여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Magical Mystery Tour)'라는 비틀즈 관광코스를 개발해 연간 수 만 명의 관광객이 가이드의 친절한 해설과 함께 2시간의 코스를 즐긴다. 이 관광코스의 마지막 장소는 비틀즈가 그들의 무명시절 300번 이상 공연을 하던 그 유명한 캐번 클럽(Cavern Club)이다. 리버풀의 비틀즈 관련 관광수입은 2014년 기준으로 7천 만 파운드에 달하며, 리버풀 존 레논 공방 이용객은 10년 전보다 10 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비틀즈의 고향이라는 자산을 활용해 도시에 활력을, 관광객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문화관광도시 리버풀은 세계적인 미술관 테이트



영국 리버풀 비틀즈 스토리



비틀즈가 공연한 캐번 클럽 (Cavern Club)



영국 리버풀 앨버트 독(Albert Dock)

리버풀(Tate Liverpool)과 워커아트갤러리(Walker art Gallery)와 더불어 생동감 넘치는 매력적인 도시였다.

셰필드(Sheffield) - 침체된 철강도시에서 문화산업도시로

리버풀에서 두 시간 가량 동쪽으로 기차를 타고 가면 셰필드(Sheffield)시에 도착하게 된다. 셰필드는 영국의 중북부에 위치한 요크셔(Yorkshire) 주에 속하는 중소도시로서 세계적인 철강산업의 도시였다. 산업혁명 이래로 영국의 철강산업을 이끌어온 전통적인 공업도시였으나 1970년대 후반 철강 및 금속산업의 침체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도시 내 인구 감소와 건축물의 공실률 증가로 이어져 지역 쇠퇴의 전형적 현상을 겪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리드밀 아트센터와 요크셔 예술협회가 설립되고 1988년 셰필드시는 문화산업지구(CIQ: Cultural Indutsries Quarter)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문화 및 미디어, 첨단산업에 주력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셰필드 역 바로 앞에 자리한 문화산업지구(CIQ)에는 국립대중음악센터(National Centre for Popular Music), '레드테이프 스튜디오(Red Tape Studio)', '워크 스테이션(Work Station)', '쇼룸(Show room)', '시네마(Cinema)', '사이트 갤러리(Site Gallery)', '밀레니엄 갤러리(Millennium Gallery)' 등의 문화공간이 모여 있으며 셰필드 할람대학교 또한 CIQ 내 위치하고 있어 문화산업과 연구기능, 전문인력 양성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30여 년 간 문화산업에 주력한 셰필드는 현재 런던과 더불어 영국의 창조 및 디지털산업의 대표적인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약 6천여 개의 문화산업 관련 종사자수가 2만 7천 명에 이른다. 특히 2000년 이후 사업자 등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셰필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듯 문화산업 클러스터로서 혁신을 이룬 셰필드의 현재는 지역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지자체가 주도한 지역활성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셰필드 사이트 갤러리(Site Gallery)

루르지역(Ruhr Gebiet) - 어두운 폐광촌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궈낸 창의적인 문화도시 리버풀과 셰필드를 뒤로 하고 또 하나의 혁신적 문화도시 독일의 루르지역으로 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탄광 산업지대에서 개최되는 국제예술축제 루어트리엔날레(RUHRTRIENNALE)를 탐방하기 위해서였다. 폐광촌과 예술축제, 참으로 놀라운 조합이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덕수가 검은 석탄과 땀으로 뒤통뻘이 되어 일하던 탄광지대는 다름 아닌 독일 중부 루르지역(Ruhr Gebiet)이다. 루르지역은 독일 북서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Nordrhein Westfalen) 11개의 도시를 아우르는 지역을 말하며 보훔(Bochum), 에센(Essen), 도르트문트(Dortmund), 뒤이스부르크(Duisburg) 등이 우리에게 비교적 알려진 도시들이다. 루르지역은 독일 경제의 젖줄과도 같은 산업지역으로서 150년



독일 뒤이스부르크 크라프트트렌탈레(Kraftzentrale)



독일 뒤이스부르크 크라프트 켄트랄레 내 기존시설을 활용한 레스토랑



독일 보훔 (Bochum) 아르헨더르트 할레(Jahrhunderthalle)

전부터 석탄과 철강산업을 통해 독일 및 유럽의 경제적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대체 에너지가 등장하고 석탄은 점진적으로 고갈되어 결국 1976년에 148개 탄광 중 35개만이 맥을 잇다가 1986년, 석탄지대의 중심이었던 졸페어라인(Zollverein)이, 1987년에는 도르트문트의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그 오랜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된다. 공장 폐쇄, 광부들의 지역 이탈, 도시 황폐화, 심각한 환경문제 등의 끊임없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루르지역은 한마디로 말해 과거를 소중히 지키고 보존해 온, 동시에 예술적 변혁을 이룬 놀라운 혁신도시이다. 에센과 뒤이스부르크의 탄광시설과 공장을 부수지 않고, 그 반대로 장기적 프로젝트(IBA Emscher Park Project)를 통해 녹색 경관 조성사업과 더불어 산업유물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졸페어라인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유럽문화수도에 선정되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 해마다 1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졸페어라인을 방문하고 있으며 관광수입만 해도 1년에 5천만 유로~6천만 유로라 한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미래로 향해 가는 곳이 루르지역이다. 바로 이 탄광지대에서 한 달 반 동안 연극, 무용, 오페라 등의 예술축제가 펼쳐지며 공연장은 다름 아닌 공장 내부이다. 축제 장소는 에센, 보훔, 뒤이스부르크, 딘스라켄 등의 탄광시설이다. 공연을 위한 기본 무대와 순수음의 전달을 위한 음향 반사판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 공장 시설 그대로다. 공연장마다, 아니 공장마다 가득 메운 관람객들로 한 달 반 동안의 공연이 거의 매진이다. 입장권 가격도 제법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르지역 예술축제를 보기 위해 불편한 교통을 감수해가며 진지하게 공연을 찾는 관객들의 열의는 공장이었던 때의 열기만큼 뜨겁다. 음악, 연극, 복합예술, 오페라,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가 뿜어내는 거칠 것 없는 예술의 힘으로 폐광촌에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한 루르지역. 그 미래가 무척이나 기대된다.



독일 보훔(Bochum) 아르헨더르트 할레(Jahrhunderthalle)앞 설치 미술

문화도시를 꿈꾸며

이번 여름 탐방한 도시들은 쇠퇴한 공업도시가 '문화예술'의 힘을 통해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재탄생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지는 곳, 창의인력이 모이는 곳,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산업을 꽃피운 곳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아울러 중요한 결실은 이곳의 주민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의 삶의 공간에 자부심을 갖게 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도시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의 발굴 및 창의적 활용,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30여 년의 긴 과정을 이뤄왔다. 무엇보다 '문화'의 힘과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철학과 전략이 깊은 울림을 주었다.

"도시는 그 길이와 너비라는 공간적 크기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품은 비전의 폭과 꿈의 높이에 의해 측정된다"는 카엔(Caen)의 말처럼 부평구 및 인천시도 시민들과 공유한 미래의 높은 꿈을 함께 일구었으면 한다.

보다



예술로
만드는
아름다운
일

부평구문화재단
2016 상반기 시즌 패키지

예매문의
부평아트센터 032-500-2000 www.bpcf.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엔티켓 1588-2341 www.enticket.com

우리 동네의 Moment of Truth를 연구하자

인천 부평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부평 아트 센터와 부평 아트 하우스, 굴포천 복개지역 주변을 연결하는 문화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평이 창의적 장소 (creative placemaking)로 거듭나고 부평 및 인근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마케팅 전략은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부평의 문화 도시 조성 사업도 신제품 출시라고 보면, 이를 마케팅할 때에도 동일한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장선문
컬럼비아 대학교 정책학 석사

WHO
누구에게 소구할 것인가?

2013년 7월 디트로이트가 도시로서의 부도를 선언 했다. 20세기 자동차 산업 메카로서의 화려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부도 선언은 꽤 충격적인 일이었다. 버클리 대학교 경제학 교수 엔리코 모레티 (Enrico Moretti,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책 '직업의 새로운 지형 (The New Geography of Jobs)'을 보면 실때 요인의 일부를 커뮤니티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모레티 교수는 책에서 혁신적인 미국, 몰락하는 제조업 허브 그리고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도시로 세 개의 미국 (Three Americas)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디트로이트의 경우, 한창 자동차 산업이 흥할 때 다른 산업으로의 가지 뻗기를 못 했고, 그 결과 도시가 지금은 유명 도시처럼 변했다는 것이다. 코닥의 본사가 있는 로체스터도 상황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수준이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실리콘벨리가 혁신 산업군과 함께 주변 서비스 산업이 클러스터를 이루며 발달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회사는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커뮤니티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의 핵심이다. 커뮤니티 내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자.

WHAT
장소가 어떤 곳인가?

창의적인 장소라는 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장소의 역사, 가치, 특색, 성격이 무엇인지, 경쟁 도시 대비 우위점과 차별점을 찾아서 제품을 분석해야 한다. 뉴욕 하이라인의 경우, 철거 위기에 놓인 화물 열차 길을 동네 주민이었던 조시 데이비드 (Joshua David)과 로버트 해먼드 (Robert Hammond)가 기본 토대를 살리며 정성껏 재개발하여 2014년 기준 연간 5백만 명이 찾는 공원으로 승화 시켰다. 브루클린 미술관 (Brooklyn Museum)이 있는 동네는 프로스펙트 공원 (Prospect Park)을 중심으로 브루클린 식물원 (Brooklyn Botanic Garden), 브루클린 공립 도서관 (Brooklyn Public Library) 등이 모여 인근 파크 슬로프 (Park Slope) 지역과 함께 일종의 문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며칠 전,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의 작품이 브루클린 식물원 (사진 1)에 전시되어 둘러보았다. 인근 노구치 박물관에서 작품을 가져와 식물원과 조화롭게 전시한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필자는 식물원 설명을 해 준 70대 노부인이 그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애착을 갖고 자원 봉사를 온다는 말이 더욱 기억에 남는다. 두 장소 모두 '자기스러움'을 잃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장소라는 제품은 그 곳을 잘 알고 아끼는 사람이 개발했을 때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안으로부터의 창조, 아이덴티티와 뿌리를 잊지 말자.



사진 1. 뉴욕 브루클린 식물원(Brooklyn Botanic Garden), 그리고 이 식물원과 노구치뮤지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 전시



HOW
보다 전략적인 마케팅 개념,
Moment of Truth를 연구해 보자

뉴욕시장 빌 드 블라지오 (Bill de Blasio)는 부임하면서 퀸즈 뮤지엄의 관장이었던 톰 핑클펄 (Tom Finkelpearl)을 뉴욕시의 문화관(Cultural Affairs Commissioner)으로 임명했다. 그는 퀸즈 뮤지엄에 재직하던 12년간 커뮤니티 및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여 타 미술관 대비,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 (사진 2)에서 높은 영향력을 끼쳐 왔다. 임명 후에는, 뉴욕시 공립 학교의 정규직 예술 교사를 316명 늘리고, 공공 교육 시스템에서 예술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힘쓰고 있다. 예술 교육의 확대는 Moment of Truth, 즉 사람들이 예술을 경험하는 동선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과 같다. 예술에 노출되는 시점이 이를 수록 향후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접점이 다양해 지고, 이는 교육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의 예술 문화 기관의 존재가 중요하며, 그 기관이 지역에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는 더욱 중요해 진다.

데이비드 쓰로스비(David Throsby) 교수는 문화 산업의 동심원 모델(Concentric Circles Model)을 통해 핵심 예술 문화 기관의 유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축이 된다고 말한다. 필자는 여기에 마케팅 방법론을 더해서 예술 문화의 동심원을 따라서 지역 커뮤니티의 주민들의 동선을 그려놓고, 각 접점 즉 Moment of Truth 마다 어떤 경험을 원하고 또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하고 상상해 보는 것이 의미있는 작업이 되리라 본다. 그 작업을 통해서 WHO, WHAT, HOW의 다각적 관점에서



사진2. 뉴욕 퀸즈 뮤지엄 (Queens Museum)의 지역 커뮤니티 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 뉴뉴욕커스 (The New New Yorkers) 프로그램
사진 제공. 퀸즈 뮤지엄

커뮤니티를 이해하게 되면 분명히 창의적인 장소 만들기(creative placemaking)의 깊이가 달라지리라 믿기 때문이다. **보다**

장선문
서강대 졸업 후, 레오 버넷 (Leo Burnett), LG전자 글로벌 마케팅 전략팀, 뉴욕시공원재단 (City Parks Foundation) 등에서 근무했다. 뉴욕 프랫 (Pratt) 대학원에서 예술문화경영 (Arts and Cultural Management)과 도시 계획을 공부하고, 현재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정책학 석사(MPA) 과정에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선택

예술은 나와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인가

기초예술이 나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문화예술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취미활동이라는 인식이 전제된 질문으로서, 무엇부터 대답해야 할지 꽤나 곤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면 항상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지만 범주화시키기 어려운 사회적 기능, 즉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곤 한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층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와 완전히 괴리된 예술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술은 일정하게 사회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층위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우선 예술의 일차적 의미로 공감과 위안을 말할 수 있다. 같은 인간으로서 공감하고 연대감을 공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술의 의미이자 매우 큰 사회적 가치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은 과잉된 연결과 결핍된 관계를 동시에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교감을 촉진시키고 이질적인 개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통합시킨다. 사회통합과 더불어 문화예술은 지역재생이라는 경제적 가치창출에 일조한다. 공연, 미술, 미디어,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산업은 사회적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의 기초역량으로 작용하며, 실제 80년대 후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역시 이러한 기초 속에서 각광을 받았다. 최근의 일례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미국 뉴올리언즈의 경우 지역 복구와 활성화에 이와 같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적극 활용하였다.

예술가와 향유자, 예술 후원자가 꽃피운 르네상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빛나던 시간을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언제나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했다. 뛰어난 예술가, 그 예술을 볼 수 있는 향유자, 그리고 예술 후원자가 그 것이다. 그리스·로마시대에 있어 시민정치가의 덕목 중에는 빈민구제와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이는 노블레스

장진민

이음스토리 이사,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박애(philanthropy)의 전통으로 현대에 계승되었다. 중세시대 예술의 주요 동력은 종교단체이며, 르네상스 이후 이탈리아 메디치가문의 후원을 통해 모두가 접할 수 있는 공공예술이 탄생했다. 특히 예술이 본격적으로 꽃핀 르네상스 이후 후원자와 예술가의 상호관계는 경제적인 필요성을 넘어 보다 다양한 이유로 지속됨을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선택을 기다리는 문화예술

이러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자의 밀도는 지역사회 가치 제고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친다. 우선 문화예술은 그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본래적 가치를 견인한다. 그리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예술가, 향유자, 후원자라는 주체에 참여하여 공동체라는 응집력을 제고시킨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언젠가 벗어나야 할 서울의 주변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 변화에는, 삶의 총체적인 방식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욱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생산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역시 자원 투입이 요구되지만 예술이란 구조적으로 시장 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닌 공공과 민간자원의 투입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술촌으로 변모하고 있는 서울 문래동
사진 출처: 월간 객석

아직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자본의 지출은 교육이나 사회복지에 비해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식되고 있어 투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삶이 선택의 누적분이라면 지역 공동체의 발전 역시 그 공동체가 선택한 누적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증상 치료가 아닌 원인 치료의 측면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매우 우수하며, 동시에 문화예술은 지역사회의 상상력을 창조하면서 복지와 경제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문화예술이 지역 공동체가 선택하는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 예술은 공동체의 시대정신

시간의 마디마디에는 그 시간을 규정하는 시대정신이 존재한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점이 굶주림이라는 절대빈곤의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의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시대정신은 보다 성숙한 차원의 가치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현명한 대답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있어 새로운 응집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만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소박한 행동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 나와 내 가족이 지역 문화예술에 보다 관심을 갖고 향유와 후원에 참여하는 것이 선택을 위한 첫 걸음이다. 그리고 이 첫 걸음을 딛기 위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서 걸음으로 길을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걸음이 맞는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은 그 길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길라잡이로서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예술후원자로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에 도착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것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문화예술이 우리와 지역에게 주는 선택의 가능성이다. **보다**



금천예술공장, 지역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문화예술을 통한 성공적인 지역재생 사례 — 영국의 게이트헤드
사진 출처: NGI



폐공장을 예술거점으로, 중국의 798예술단지(798 Art District)
사진 출처: 월간 사진

밴드 음악은 살아있는 음악이다. 지난 해 처음 시작한 <부평 밴드페스티벌>은 음악의 강렬한 생명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공연이었다. 음악 도시 부평의 정체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무대가 올해는 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기대된다.

인사이드 부평 :
2015년 하반기 주요 프로젝트를 깊은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VIEW FINDER

- 01 - 부평 밴드 페스티벌
- 02 - 2015 부평예술축제

ZOOM IN

- 01 -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 02 - 부평육선 '화이트세일'
- 03 - 링 위의 가족

음악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잇다 부평 밴드 페스티벌

부평에서 밴드 페스티벌이
열리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1950~1960년대 부평 에스캅
부대 주변 30여 개 음악
클럽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수와 밴드가 활동을 했고,
그들이 한국대중음악 60년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말이다. 필연처럼
<부평 밴드 페스티벌>의 첫
번째 막이 올랐다.

글 편집부 | 사진 이선호



음악도시 부평을 이야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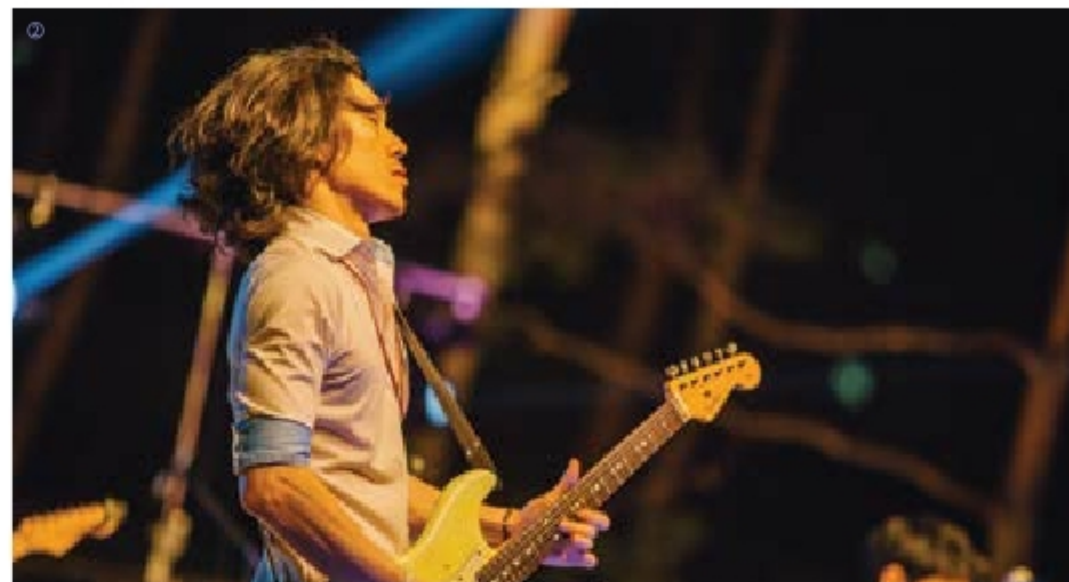
지난해 10월 16일, 17일 양일간 열렸던
<부평 밴드 페스티벌>은 '올 댓 밴드
all that band', 다시 말해 밴드 음악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보여준 축제였다.
부평아트센터가 기획한 이번 행사는
블루스부터 락, 팝 등 각종 장르를 망라한
것은 물론이고, 브라스 밴드, 빅밴드,
국악과 락의 크로스오버 밴드 등 그
구성도 다양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전설부터 스타를 꿈꾸는 새내기 밴드까지,
세대까지 초월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음악도시 부평의 스토리를 풍성하게
담아낸 축제였다. 16일 부평 음악
스토리의 시작을 짚어보는 '오리지널밴드'
공연으로 시작되어 17일 오늘날 부평과
인천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밴드들의 연주가 주축이 된 '탐밴드'
공연으로 이어진 것도 그러한 섬세한
기획의 결과였다.

'오리지널 밴드'와 부평의 숨은 음악 이야기

첫날, 화려한 축제의 시작은 '팡파르'로
시작되었다. 부평아트센터 구름마당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 오른 브라스 밴드
'블루스 챔버'는 색소폰과 트럼펫 등의
금관 악기와 드럼, 기타 등의 악기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음악으로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블루스 챔버'는
부활, 이승철 밴드에 세션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실력있는 멤버들로 구성된
혼성 8인조 브라스 밴드. 시원한 브라스
사운드와 열정적인 피아노 선율, 섹시한
보컬, 감미로운 기타 소리로 'Reconsider
Baby', 'Someday After Awhile' 등의
곡을 연주했다. 밴드 멤버가 갑자기
무대에서 내려와 관람석을 돌며 연주를
하자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첫날 공연의 사회자는 MBC FM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연으로 유명한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였다. 그는 공연
내내 대중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①
가을날, 가슴을 시원하게 해 주는
밴드음악에 많은 부평구 주민들이
부평아트센터 야외 무대 앞에 모였다.

②
'에스캅 슈퍼밴드' 기타리스트의 열정
넘치는 연주

바탕으로 밴드들이 연주하는 음악과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부평 음악 씬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조곤조곤
풀어놓아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음으로 등장한 '부평 올스타
빅밴드'는 부평 지역의 연주인들이 중심이
되어 2005년 창단한 연주 그룹. 무대를
꽉 채운 밴드는 노련한 연주로 'American
Patrol', 'Moon River', 'Maria Elena',
'Danny boy' 등 추억의 명곡과 우리 가곡
'바위고개'를 멋진 스윙 음악으로 편곡하여
들려주었다. 관객들은 익숙한 멜로디에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음악에
빠져들었다.

이철호 · 현미, 전설이 돌아왔다!

밴드가 '베사메무췌'를 연주하자 깜짝
무대가 펼쳐졌다. 인천지역 현대무용
단체인 코리아 액션 댄스 컴퍼니의 댄스
팀이 등장해 커플 댄스를 선보인 것이다.

아름다운 춤에 정신이 팔린 것도 잠시,
이날의 첫 번째 특별 게스트의 등장으로
무대는 다시 후끈 달아올랐다. 전설의

밴드 '사랑과 평화'의 원년 멤버 보컬리스트
이철호가 등장한 것이다.

한국의 대표 핑크 밴드로 사랑받았던
'사랑과 평화'는 부평의 음악사와 관련이
깊다. 1집 <한동안 뜸했었지>, 2집 <장미,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등을
빅히트시킨 이 밴드의 전신이 1970년대
중반부터 미8군 무대에서 활동하던
'서울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그가 여전한
목소리로 '얘기할 수 없어요' 등 밴드의
히트곡과 'My Girl', 'Stand by me',
'You Are So Beautiful' 등을 부르면서
축제는 절정을 이뤘다. 퍼져나가는 노래를
듣고 끌린 듯 발걸음을 향한 이들 덕분에
잔디광장에는 천 명을 훌쩍 넘는 관객이
모였다.

축제 첫날의 피날레는 가수 현미가
화려하게 장식했다. 현미는 히트곡
'밤안개'를 부른 후 '평소 반주 CD에 맞춰
노래하는데 오늘은 밴드 반주에 맞춰
노래하니 정말 좋다'고 말했다. 녹음되지
않은 생생함. 밴드 음악의 매력을 한
마디로 표현한 감상이었다.

현미 또한 가수로서의 시작은 미8군
공연단에서부터였다. 미군부대 장교클럽

쇼단 소속 무용수로 일하던 그녀는 우연히
핑크 댄 가수 대신 무대에 서게 되었고
그것이 가수로서의 첫 출발이었다고 한다.

감기로 목이 좋지 않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파워풀한
목소리로 '노란셔츠 입은 사나이',
'보고싶은 얼굴', '대니 보이' 등의 히트곡을
들려주고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몸짓으로 그에 화답했다. 관객들은 현미가
부르는 '내 나이가 어때서'를 따라 부르며
끝까지 공연을 즐겼다.

'오리지널밴드'의 공연은 같은
내용으로 11월 25일 송도 트라이볼에서도
열려 인천시민들과도 함께할 수 있었다.

'탐밴드', 젊음으로 날아오르다

첫날이 전설이었다면, 둘째 날은
젊음이었다. '탐밴드'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 둘째 날은 일찍부터 부평아트센터가
들쭉들쭉했다. 3시 30분부터 재능있는
차세대 음악인들이 버스킹을 벌이는
'부평 프린지' 공연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어쿠스틱 감성밴드 '모리쉬', 부드러운

음색의 감성 듀오 '미스티 멜로우', 인천 직장인밴드 '에이스원', 담백하고 풍부한 사운드의 '예술빈자사기단', '인천재능대 실용음악과 학생 밴드'까지 곳곳에 열정이 부평아트센터 놀솔원을 가득 채웠다.

어스름이 깔리자 음악 평론가이자 연출가인 윤중강이 사회자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음악으로 도시재생에 나서는 부평을 알리며 페스티벌 둘째 날을 열었다. '도시재생'이 세계적인 흐름이며 부평은 문화, 그중에서도 음악을 테마로 도시재생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퓨전 밴드 '엑스라인'의 힘찬 북소리가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엑스라인'은 더닝, 아작, 비류와 인천을 대표하는 록그룹 '디아펜테'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밴드. 북소리와 전자 기타 선율이 갈마들고, 여성 연주자들의 힘찬 난타와 드럼의 울림이 땅을 흔들자 관객들도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구성진 우리 소리와 록 보컬의 외침이 어우러지고 풍물패의 버나 돌리기와 상모 돌리기까지 등장, 무대와 객석은 흥겨움에 들쭉거렸다. 밴드 페스티벌에 웬 풍물패가

심을 테지만 그 궁합은 환상적이었다. 부평이 음악 도시이자 풍물 도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고개가 고덕여지는 무대였다.

더 뜨거워질 2회를 기약하며

합성과 앵콜 요청으로 뜨거웠던 무대에 이어 '에스캄 슈퍼밴드'가 당당한 위용을 드러냈다. 드럼 두 대에 기타 네 대, 색소폰 등의 악기로 포진한 '에스캄 슈퍼밴드'는 부평에 주둔했던 미군부대 에스캄에서 이름을 따왔다. 서양의 대중음악을 들어오는 관문 역할로 우리나라 대중음악 발전에 기여한 부평의 음악적 가치와 정체성을 이어가고자 만든 밴드이기 때문이다.

'Time Is Tight', '미안', 'Rock'N Roll Medley' 등을 파워풀한 사운드로 연주해 관객이 블루스에 젖어들게 한 밴드는 특별한 손님을 무대로 불러냈다. 신촌블루스 출신의 보컬 정경화였다. '신촌블루스'는 1986년 결성돼 고(故) 김현식, 한영애, 정경화, 이은미 등

실력과 보컬리스트를 배출하여 한국 블루스 음악의 산실이라 불리는 밴드. 정경화는 '신촌블루스' 밴드 앨범 2, 3집에 참여하면서 '나에게로의 초대', '지상에서 영원으로' 등의 아름다운 노래로 대중들의 가슴에 아로새겨진 가수다. 정경화는 자신의 히트곡과 'Proud Mary', 'I'm Down' 등 팝 명곡을 번치 않은 매력적인 목소리로 들려줬다.

이들간의 뜨거웠던 축제의 대단원을 내리는 것은 실력파 펑크 록밴드 '딕펍스'가 맡았다.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하며 음악성을 인정받은 '딕펍스'는 '비바청춘', '한강에서 놀아요' 등 젊은 감성의 신선하고 발랄한 곡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밴드다.

"음악도시 부평의 밴드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한다"며 무대에 오른 딕펍스의 보컬 김태현은 "앞으로 부평 미군 부대 부지가 공원으로 바뀐다고 들었다. 2회 밴드 페스티벌은 그쪽에서 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멋진 것 같다. 2회, 3회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해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딕펍스'의 공연은 특히 젊은 관객들이 열렬히 반응한 무대였다. '비바청춘', '한강에서 놀아요', '연극이 끝난 후', '그 일', '썸글라스' 등 히트곡을 부르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춤을 추고 손을 흔들며 공연을 즐겼다.

썩썩하고 세련된 무대 매너로 관객들과 소통한 딕펍스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화답하며 '단발머리', '뮤직' 두 곡의 더블 앵콜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보단

<부평 밴드페스티벌>은 어린이, 젊은이, 어르신까지, 세대를 넘어서 음악에 뜨겁게 공감하는 축제였다.



예술을 나누는 행복 한마당 2015 부평예술축제

글 편집부 | 사진 이선호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상모 돌리기 공연이 펼쳐지자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소통과 나눔을 위한 축제

지난해 9월 4일, 부평아트센터에서는 부평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예술가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예술역량을 한껏 펼쳐 보이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향유함으로써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2015년 처음 시작한 <부평예술축제>가 그것이다.

원래 6월에 기획되었던 축제가 석 달 후이나 열리게 된 것은 메르스 때문이었다. 아쉬움이 크고 기다림이 길었던 탓인지 축제의 내용은 더욱 알차게 짜여졌다.

개막 행사에서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바야흐로 시작된 지역문화 융성시대에 발맞춰 시민들의 참여로 지역예술의 소통을 확장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축제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의 기금이 주요 재원이 되었다는 것 역시 <2015 부평예술축제>가 온전히 ‘부평인의, 부평에 의한, 부평을 위한 축제’라는 것을 말해 준다.

문화도시 부평의 현재를 보여준 개막식 공연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우쿨렐레 앙상블의

굳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밖에 나가 소슬바람을 느끼고 싶은 계절 가을, 문화예술이 함께 한다면 어떨까? 어느 가을 저녁,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부평 지역 예술가들이 그동안의 예술성과를 부평예술축제 무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경쾌한 연주로 막을 열었다. 부평구문화재단 박옥진 대표이사의 개회 선언 후, 부평구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부평구의회 박종혁 의장, 부평구문화재단 최도현 후원회위원장,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서광일 협회장의 격려와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이 후 비엔나 ‘페스트 아트 비엔나’ 국제 합창대회 그랑프리에 빛나는 부평구립소년소녀 합창단과 세계적인 성악가인 베이스 이연성과 소프라노 김민지,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축제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어진 현대무용단은 열정적인 춤으로 감미로운 목소리에 취한 관객을 깨웠다. ‘아드레날린’이라는 제목처럼 손끝 하나까지 감전된 듯 꿈틀대는 칼군무가 무대를 가득 채웠다.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흥겨운 북춤과 상모돌리기가 무대에서 펼쳐지자 관객들의 탄성이 절로 터져 나왔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판굿과 함께 개막식은 막을 내렸다.

문화 향기 그윽한 가을밤의 축제

축제의 열기는 유난했던 폭염이 한풀 꺾인 가을밤 야외무대에서 한층 뜨거웠다. 축제 둘째 날인 9월 5일 부평아트센터 잔치마당에는 특설무대가 설치되었다. ‘얼리버드’ 관객들에게 특별 행사도 기다리고



① 부평예술축제는 ‘우쿨렐레 앙상블’의 경쾌한 연주로 막이 올랐다.

② 국제 합창대회 그랑프리에 빛나는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③ 아름다운 화음으로 관객들을 감동시킨 부평구립여성합창단

④ 열정적인 춤을 선보인 현대무용단의 무대

있었다.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의 7개 분과는 야외 무대 앞 구름마당에 부스를 마련하고 공예 및 놀이마당(미술), 휘호와 가훈 쓰기(서예), 스마트폰 사진 촬영 특강 및 콘테스트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축제 기간 갤러리 꽃누리에서는 부평과 인천의 풍경을 다양한 시선으로 오롯이 담아낸 작가들이 ‘상생’이라는 주제로 형상화한 서예, 미술, 사진 작품들도 전시되었다. 전시는 야외에서도 벌어졌다. 지역 작가들의 소장품을 소품 중심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아트페어 ‘수장고 개방’을 진행한 것. 아트센터 로비에서는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후원기업들이 시민들에게 알찬 혜택을 제공하는 홍보관도 마련되었다.

열정과 서정이 어우러진 축제 마당

둘째 날 공연은 우쿨렐레와 재즈기타, 성악,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격조 높은 음악회로 시작되었다. 다양한 음악과 함께 노을이 지고, 진보랏빛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가을밤의 서정도 깊어갔다.

부평구립풍물단의 옷다리풍물과 길놀이 판굿이 이어지고 극단 갯돌이 펼친 마당극 ‘남도천지밥’의 해학 넘치는 유머에 관객들은 깔깔 웃음을 멈출 줄 몰랐다. 둘째 날 축제를 마무리하며 풍물단이 이끌자 관객들은 강강술래를 돌며 화합의 난장을 즐겼다.

마지막 날 공연은 현대무용단, 비보잉 팀, 실버댄스 팀의 몸짓으로 시작되었다. 전통 국악단과 타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공연단이 함께 ‘상생의 비나리’, 타악 연희 등을 펼쳐 관객들의 흥을 북돋웠다. 뒤이은 재즈 공연에는 젊은 층의 호응이 컸다. 화려하게 펼쳐지는 즉흥 연주에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타악 공연단과 재즈 뮤지션들의 ‘잼’ 공연으로 축제는 절정을 이뤘다.

음악 소리가 잦아들고 축제의 끝을 알리는 사회자의 안내 멘트에도 관객들은 쉽사리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여운 속에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에게서 다음번 축제에 대한 기대 또한 읽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지역문화예술 축제를 향한 첫발로서 손색없는 무대였다.

보다



응답하라! 당신의, 나의, 우리의 아름다운 시절

글 편집부 | 사진 전석병 외

“기타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기타 소리만 들으면 힘이 나요.”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용생의 대사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응원해주는 것도 꿈이야.
꿈은 조각나지 않아.”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용국의 대사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사랑이 나타나면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연희의 대사 중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쁜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흠 하나 없이 완벽해야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절은 어떠했는가. 뜨거웠기에 아름다웠고, 누군가를 사랑했기에 아름다웠으며, 희생이 있었기에 아름다웠고, 슬픔이 비껴있기에 아름다웠던 우리의 시절을 아련히 추억해 볼 수 있는 한편의 뮤지컬이 지난해 말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무대에 올랐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많은 뮤지션들의 활동무대였던 1960년대 부평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다.

음악도시 부평의 근원을 파헤쳐보는 뮤지컬

국내 재즈 뮤지션 1세대 신중현, '키보이스' 리더 김홍탁,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의 키보드 연주자 김청산, 김희갑 악단 드러머 김성환, 국민가수 현미의 공통점은? 모두 1950~1960년대 '에스캅'으로 불렸던 부평의 미군부대 클럽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실력을 쌓아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거대한 뿌리가 된 뮤지션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활동했던 그 때 그 시절의 부평은 어땠을까? 그 모습을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간 듯 생생하게 보여주는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무대에 올랐다.

뮤지컬은 영화 <모정>의 삽입곡인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면서 막이 오른다. 무대에는 1960년대 초반의 부평의 모습이 고스란히 펼쳐진다. 당시 지금의 부평 신곡동에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육군 조병창 대신 미 8군 보급창인 '에스캅'이 들어서 있었다. 주위에는 많은 미군 부대들이 상주해 이들 부대는 부평 경제의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자연스럽게 에스캅 주변과 그 일대인 신촌은 미군을 상대로 상점들이 번성했다. 또한 부대 안엔 타향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을 위로해주기 위한 클럽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를 미8군 무대라고 했는데 당시 미8군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는 일이었고 이 무대를 통해 국내의 정상급 가수들이 수없이 배출되었다. 부평에는 의정부, 동두천, 문산, 송탄, 파주, 부산, 대구 등에 있었던 여타 미 8군 부대에서보다 큰 규모의 클럽들이 성업하고 있었다.

그 시절 부평에 살았던 사람들의 꿈과 사랑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이러한 시절과 그 당시 부평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주인공 용생은 미군들을 상대로 구두닦이를 하는 청년으로 부모님을 여의고 부평 삼릉에

있는 큰어머니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어느날 미8군 쇼 무대를 보고 매료된 그는 팝 음악에 빠져들고, 미8군 무대에 서는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일단 비싼 기타를 구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을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무대에 설 기회를 잡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다. <당신의 아름다운



아름답게 채색하는 ‘당아시’의 디자인

무대 | 디자이너 이인애

한국전쟁 직후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 활기 넘치는 클럽들이 준비한 부평의 신촌거리와 궁핍했던 우리네 이웃의 일상을 떠올리게 하는 삼릉 출사택이 무대의 주요배경이다. 다양한 장면은 회전무대를 이용하여 연출했다. 전체적인 톤은 하나로 통일하여 화려하면서도 피폐했던 시대 정서를 최대한 살렸다.



의상 | 디자이너 박현주

1950년대~1960년대 어려웠지만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중점을 맞춰 일상복은 시대상을 보여주는 약간은 어두운 계열 등을 사용하고 실루엣도 스트레이트하게 제작하였다. 인물에 따라 컬러와 패턴으로 포인트를 주어 캐릭터를 강조했다. 이에 반해 쇼복이나 판타지 장면들은 클럽 의상으로서 음악의 분위기와 안무에 맞춰 섹시하거나 화사하고 반짝반짝한 의상들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어려웠지만 꿈은 찬란함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분장 | 디자이너 김선희

1950년대 화장 문화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는 섹시한 스타일의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밝은 색의 피부 톤에 육감적으로 보이도록 얼굴의 윤곽은 살리고 강한 아이라인으로 매력적인 모습과 동시에 순수하고 순진한 그 시대 청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시절>은 용생이 눈물과 절망 속에서도 꿈을 결코 잃지 않고 앞으로 헤쳐나가는 과정을 가장 큰 줄거리로 삼는다. 전쟁 직후의 팍팍한 삶을 '내일은 더 나으리라'는 희망 하나만으로 맹렬하게 살아갔던 부모님 시대의 삶을 고스란히 투영하는 모습이다.

완성도를 크게 끌어올린 두 번째 무대

창작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2014년 11월 초연한 것을 크게 업그레이드하여 다시 무대에 올린 작품이다. 아쉬웠던 초연의 녹음 반주 대신 생생한 뮤지션들을 기용하여 생생한 라이브로 무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2015년 공연의 가장 큰 특징. 배우들도 연주가 역할을 맡은 이들은 전문 연주가급의 배우를 기용해 사실성과 극의 완성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소극장에서 대극장으로 옮긴 만큼 무대는 물론 배우들의 움직임도 화려해졌다. 14명이던 출연진 수도 21명으로 늘었다.

스토리 라인도 대폭 강화되었다. 김정숙 작가의 작품을 '옥랑희곡상' 수상에 빛나는 이시원 작가가 각색해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로써 "앞으로 부평이란 지역성을 더욱 의미있게 전달하며 대형뮤지컬로 성장하리라고 본다. 이른바 지역을 소재로 한 '킬러 콘텐츠'로서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론가 윤종강의 초연 평은 예언이 되어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합회의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 개발 지원사업에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이유가 증명되는 것이기도 하다.



별처럼 영원히 반짝이는 그 시절 음악들

용생의 이야기엔 그 시절 부평을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다채롭게 얹혀있다. 납작한 2차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처럼 3차원의 생생한 입체감을 가진다. 미8군 클럽에서 노래하는 연희를 짝사랑하는 용생의 사촌형 용국, 생계를 위해 어린 나이부터 공장에서 일하는 용국의 동생 용미. 용생처럼 미8군 무대에 설 것을 꿈꾸는 금복·은복 자매 등... 부평 삼릉에 살았던 평범한 이들의 사랑과 꿈과 희망이 극에 별처럼 점점이 박혀있다. 별과 같은 이야기는 그 시절을 풍미했던 올드 팝과 록큰롤, 재즈 선율로 더욱 빛이 난다.

극에 사용된 음악은 그냥 '옛날 노래'가 아니다. 그 시절 발표되어 영화 ost로, CF 배경음악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들의 입으로 리바이벌 혹은 리메이크되어 다시 불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은 노래들이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의 이경화 음악감독은 "그 시절 유행하던 음악이기에 그 시대 젊은이들이 따라 불렀고, 지금까지 불리는 곡들이라 현재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도 흥얼거릴 수 있는 곡들로 선택하였다. 그 시절 젊은이였던 부모님들과 지금의 아들, 딸들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뮤지컬의 막이 오르면 그 시절 부평 신촌 거리가 무대에 나타나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Don't be cruel'이 흘러나온다. 용생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환상 속에서 만나는 장면에는 넷킹콜의 'Too young'과 '따오기'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가을'이라는 동요를 들을 수 있다. 용생은 물론 관객들의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따뜻한

선율로 편곡되었다.

에스캄 무대 오디션에 나가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멤버를 갖춘 용생의 밴드 '더스트문'이 처음으로 맞춰보는 노래는 템페이션즈의 'My girl'이다. 기타리스트 용생과 피아니스트 기태, 드러머 동규, 베이시스트 만철, 색소포니스트 형진, 트럼펫터 성범은 오디션 본 무대에서 어깨를 들썩거리게하는 활기찬 연주로 루이 암스트롱의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을 멋지게 소화해 낸다. 에스캄 무대 클럽의 히로인 연희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코니 프랜시스 'Who's sorry now' 등의 노래를 불러 극 중 남성들은 물론, 관객들까지 매료시킨다.

라이브 음악으로 관객과의 소통에 성공

이 외에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Are you lonesome tonight', 로넬츠의 'Be my baby' 자니 캐시의 'Your are my sunshine', 더플래터스의 'Only You' 등 그 시절 젊은이들이 불렀고, 지금 세대 젊은이들이 흥얼거릴 수 있는 주옥같은 노래들이 사용되었다. 이 노래들은 감동적인 연기와 함께, 화려한 율동과 함께 설새없이 무대를 수놓는다. 실제로 공연이 진행되는 극장 안에서는 관객들이 음악이 흘러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무대와 하나 되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 관객들이 각자의 추억과 현재의 삶을 소환하여 무대 위의 공연과 공명하는 순간이었다.

권호성 연출가는 지난해 상반기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대극장 공연에서는 음악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므로 음악이 들리고 보이게



하겠다. 라이브 음악으로 관객과 소통하겠다"고 호언한 바 있다. 약속이 훌륭하게 실현되었음을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시대와 세대, 장소를 넘어서는 뮤지컬

용생은 꿈인 '미8군 클럽 무대 기타리스트'가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갖은 고생 끝에 밴드 '더스트문'을 꾸리지만 오디션 직전 크나큰 위기를 맞는다. 큰 어머니가 쓰러지고 클럽에서 벌어진 싸움으로 멤버들은 헌병대에 끌려간다. 설상가상으로 기타까지 부러지고 만다. 밴드의 싱어로 점찍은 연희마저 미국행을 선택하면서 그의 꿈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관객들의 안타까움과 몰입도는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도시 인천의 한 지역, 부평의 과거 한 시절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부평만의 이야기로 가들 수 없는 보편성이 녹아 있다. 꿈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용생에 공감할 수 있으며, 첫사랑에 애태워본 경험이 있는 누구나 용국의 마음에 이입된다. 생활 때문에 그렇게 간절했던 꿈들을 잊어야 했던 누구나 무대 위의 상황에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꿈과 사랑, 희망'은 1960년대에 부평에 살았던 이들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과 세대를 망라할 뿐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진 감정들이다. 임진모 음악평론가가 "가족 음악극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한 것이나 연극평론가 한양여대 김성희 교수가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글로벌 콘텐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외에서도 충분히 호소력과 경쟁력을 지닌 음악극으로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평한 것은 모두 그 때문이다.

음악도시 부평의 내일을 비춰주는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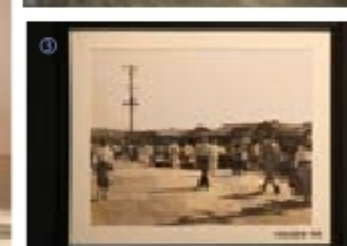
반면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음악도시 부평의 자산과 가치를 새삼 재확인'한다는 특수성까지 획득했다. 극의 마지막, 멤버 전원이 무대에 나와 'Too Young'을 합창할 때 무대 위의 스크린이 잠시 내려온다. 스크린 위에는 부평 에스캄 무대에서 활약했던 가수 현미, 사랑과 평화의 보컬 이철호, 음악평론가 임진모 등의 짙막한 인터뷰가 연이어 비춰진다. 당시 부평 미8군 클럽 무대가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성장 거점이자 대중음악 60년 역사의 뿌리가 되었다는 증언들이다.

부평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음악-융합도시'로 선정되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진행될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그 의미를 짚어보는 공연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훌륭한 역할을 해내었다.

막이 내려졌다 다시 올라가고 레이철스의 'What I'd say'에 맞춘 출연진의 화려한 군무가 커튼콜로 다시 무대를 꽉 채웠다. 세 시간 가까이 공연이 이어졌음에도 음악에 맞추어 신나게 몸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호응하는 관객들의 모습에서 '음악-융합도시 부평'의 머지않은 성공이 점쳐졌다. **보도**

우리가 잊었던 아름다운 시절의 기록, 블루지 60

글 편집부 | 사진 전석병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1960년대. 여전히 먹고 살기 어려웠고 정치 현실은 엄혹했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던 시대였다. 오늘은 이렇게 힘들지만 내일은 행복할 거란 꿈. 밥 대신 꿈을 먹고 살던 '아름다운 시절' 60년대가 다양한 기록물을 통해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 되살아났다.

19세기 미국 흑인들의 애환을 담은 블루스처럼, 미군부대 주둔지에서 피어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찬란한 기원이었던 1960년대 부평의 모습을 부평역사박물관과 부평구청은 물론 김호근, 차경수 등 개인 소장 기록물로 재구성했다.

전시실을 들어서자마자 프로젝트를 통해 전시실 벽에 나타나는 사진들은 '차차차 오남매'의 사진이다. 1958년부터 공연을 시작한 '차차차 오남매'는 아코디언(누나), 기타(사촌 형), 드럼과 싱어(차경수, 소장자), 하와이안 기타(사촌 여동생), 우쿨렐레와 말라카시(막내 여동생) 5인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960년대

부평 에스캄 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전시실 벽에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뿌리가 되었던 1950년대와 1960년대 부평을 기록한 흑백사진이 나란히 걸려있다.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 속에 더 나은 내일을 꿈꾸던 당시 민중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진들이다. 이 외에도 전시실에는 196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밴드와 보컬들의 LP 레코드 재킷들, <라이프>와 <타임> 등 잡지가 전시되어 향수와 당시 시대상을 일깨워준다.

전시 마지막 순서는 인체의 움직임에 맞춰 영상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션엔진'이라는 미디어 설치 작품이다. 모션엔진은 사람과 공간, 음악과 영상,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확장된 경험을 제공한다.

역사 속에서 잊히거나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그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번역하여 관람자들과 소통하는 전시 '블루지 60'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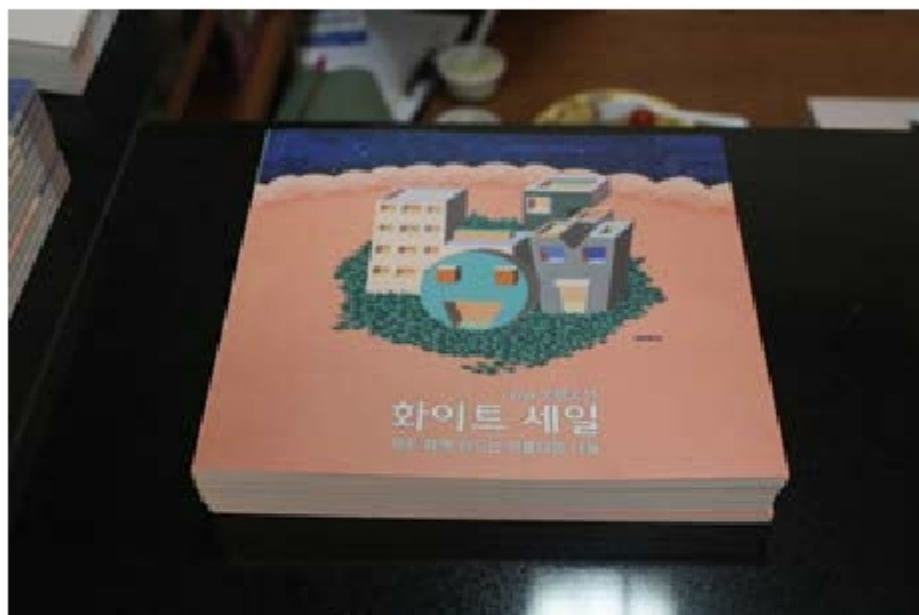
① 전시장에 들어서면 솔라이트로 상영되는 '차차차 오남매'의 사진들을 만나게 된다.

②, ③ 전시장 안에는 전쟁 직후 부평 에스캄 부대 주변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④ 60년대의 삶을 엿본 사진으로 담아냈던 잡지 <라이프>.

⑤ 1962년 가수 한명숙이 발표한 큰 히트를 친 노래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의 가사가 벽에 쓰여있다.

아름다운 나눔,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부평구문화재단이 2014년에 이어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 두 번째 예술품 자선 경매 행사인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을 열었다. 출품자와 낙찰자 모두 의미있는 나눔에 참여한다는 기분좋은 흥분으로 따뜻했던 현장을 사진으로 되돌아본다.

글·사진 편집부

예술 향유와 기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행사

화랑미술제(1986~), MANIF(대한민국미술축전, 1995~), KIAF(Korea International Art Fair, 2005~) 등 국내의 굵직한 아트페어들이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의 아트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 여기에 아트 갤러리와 큐레이터, 그리고 작가들이 직접 참여한 새로운 형식의 군소 아트페어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반인들의 미술 참여 접점도 점점 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한 계층을 위한 이벤트가 아닌, 모두를 위한 다양한 작품 감상과 소장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한국미술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일반인들의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에 호응하는, 이색적인 미술품 경매가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열렸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기관으로써는 이례적으로 2014년부터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을 열어, 미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다양한 층위에서 이끌어내고 있다. 평소 미술에 관심은 있었지만 작품의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이들이나,

기부를 하고 싶는데 그 방법을 몰라 고민했던 이들에게 작품 소장가 기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며, '예술을 통한 나눔 확산'이라는 자선경매 행사의 취지를 살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에서 예술가의 삶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또한 유도하고 있다.

미술품 경매로 따뜻하게 나누는 예술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은 자선 미술품 경매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고, 재단은 작품들을 경매로 되팔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낙찰자의 이름으로 경매 수익금의 50%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행사에 앞서 이런 공익적인 의미와 가치를 살리는 부평구문화재단 박옥진 대표의 기부 선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표와 함께 공식 선포되었다. 박옥진 대표는 '모두 함께 나누는 예술'이라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슬로건이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을 통해, 예술을



부평구문화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대표가 공동으로 기부선언을 하고있다.



부평구문화재단 박옥진 대표의 개회사로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이 시작되었다.

통한 새로운 형태의 나눔 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술품 경매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 지 확실히 아는 일반인들은 드물다. 작품 관람은 익숙해도, 작품 가격을 물어보거나 작품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숙제다. 미술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가격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부평구문화재단의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은 미술 작품이 어떻게 가격이 매겨지고 또 어떻게 판매되는지를 확인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었다. 행사는 자신의 작품이 낙찰될길 기대하는 작가들과,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좋은 가격대에 낙찰 받고 싶어하는 경매 참여자들, 그리고 참관객들로 인해 분위기가 뜨거웠다.

소품 경매로 지역 미술 시장 활성화에 불씨

2015년 부평옥션은 총 3부로 진행되었다. 박동희의 '꿈꾸는 고양이', 이영애의 '사유의 정원' 등 지역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1부 '메이저세일(Major sale)', 재미킴의 'lalala love' 등

부평영아티스트 선정 작가들과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2부 '커팅 엣지(cutting edge)', 그리고 한아름의 '사라네 가족', 이동규의 'boom boom' 등 소품 크기 작품 경매를 15만 원부터 시작하는 3부 '스페셜세일(special sale)' 등이다. 이중 '커팅 엣지' 부문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에서는 평면적인 회화는 물론, 판화, 사진, 조각 등의 작품도 두루 선보여 미술품 경매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의 취지를 살려 낮은 시작으로 시작된 미술품 경매는 일반인들의 경매 참여 동기를 부여하여,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에 대한 작은 가능성을 엿보게 하였다.

작가와 낙찰자 모두 행복했던 나눔의 현장

이날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에 출품된 60여 점의 작품 중 총 30점(낙찰가 978만 원)의 작품이 낙찰되면서, 공공문화예술기관이 주최한 행사로는 적지않은 기록을 세웠다. 한편, 11월 13일 프리뷰 전시부터 시작된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출품작 전시는 경매를 진행한 본 행사 이후에도 11월 29일까지 전시를 계속한 후, 낙찰된 작품들은 모두 낙찰자들에게 보내졌다. 작품 판매가의 50%는 경매 후 낙찰자의 이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안내 책자를 찾아보며, 경매에 물입한 참관객들의 표정이 다양하다.

프리뷰전의 서면 응찰자를 대신해, 부평구문화재단 직원들이 경매에 응하고 있다.

전문경매사의 진행으로 독특한 경매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경매에 참여한 지역경사와 일반인들의 표정에 진지함이 묻어난다.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차가워진 날씨에 마음의 온기를 전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화이트세일'이 올해도 다시 한 번 따뜻한 뉴스를 들려주길 기대한다. **보다**



경매 낙찰가를 기록하는 부평구문화재단 우사라 큐레이터의 눈과 손이 분주하다.



낙찰된 자신의 작품 앞에선 민진 작가



올해 행사의 커버(우측 작품)를 장식한 재미킵 작가



이슬희, <강원도연가>를 낙찰받은 올해 최대 경매 낙찰자



한윤기, <달의 기억>을 낙찰받은 소성주 막걸리의 정규성 대표

<현장 미니 인터뷰>

참여 작가 — 민진

출품작을 특별히 준비하신 건가요? 원래 대형작품을 많이 하는데, 이번 미술품 경매 행사는 소품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특별히 작은 작품들을 준비했어요. **미술품 경매에 참여하신 것은 처음이신가요?** 자선 행사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참여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원래 제 작품 가격보다 굉장히 많이 낮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 작품이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어 기뻐요.

참여 작가 — 재미킵

부평옥션의 커버를 장식하며 활약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조금 쑥스럽기는 한데, 방송을 통해서 행사를 널리 알리게 돼 기뻐했습니다.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이 사랑과 꿈을 나누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제 작품이 행사의 이미지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낙찰자 — 여성 공예가

부평옥션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곳 미술협회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을 알고 한 번 왔었어요. 그때 작가들과 안면을 조금 터서 미술품 경매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칠보 공예를 하는데, 나중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이번에 낙찰 받은 작품들을 나중에 갤러리에 전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게다가 뜻이 좋으니까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지요.

낙찰자 — 소성주 막걸리 정규성 대표

한윤기 작 <달의 기억>을 어떻게 고르게 되셨나요? 제가 막걸리공장을 운영하는데, 달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냥 달밤에 막걸리를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품은 공장에다가 전시할 생각이예요. **원래 미술품 컬렉션은 자주하세요?** 이번에 처음 왔어요. '사랑의 열매'에서 팸플렛을 보내줬어요. 공장이 부평에 있거든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라고 하니까, 겸사겸사 왔죠. 이미 부평구청 더드림사업이랑 부평구풍물축제 등을 후원하고 있어요. 인천 시민들이 저희 막걸리를 많이 마셔주니까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해야 되잖아요.

‘통(通)’하는 가족이 되기 위한 한 판 배틀 링 위의 가족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글러브를 끼고 링 위에 섰다. 서로에게 할 말은 많지만 통하지는 않는다고 느끼는 가족. 외로움과 괴로움에 주먹을 날리듯 대화를 시도하지만 소통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가족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소통은 과연 어떻게 가능해질까, 연극으로 모색해 보는 자리가 있었다.

글 편집부 | 사진 이선호



<링 위의 가족>은 관객들이 연극에 직접 참여 하는 포럼연극의 형식을 띤다.

가족의 소통에 대해 생각해 보는 연극

포럼연극이란 관객이 직접 극에 참여해 극 중 상황을 판단하고 토론하는 연극을 말한다. 브라질의 연출가 아우구스트 보알이 창안한 포럼연극에서는 관객들이 객석에 앉아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실험하고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본다.

지난해 10월 23일 부평문화사랑방 무대에 오른 <링 위의 가족>은 포럼연극이다. 연극의 주인공은 폭풍 다혈질 성격을 가진 아빠, 중2 감수성이 충만한 딸, 반항기로 가득한 사춘기 아들, 잔소리 대마왕 엄마다. 권투 경기처럼 ‘공’과 함께 시작된 연극에서 가족들은 저마다의 입장과 감정을 내세우며 끊임없이 서로에게 이야기한다.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아빠의 한탄이나, 자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될 뿐이라는

아들의 항변, 충돌하는 가족들 사이에 끼여 힘들다는 딸의 불평, 밖에서나 안에서나 종종걸음을 쳐야 하는 워킹맘 엄마의 절규는 서로를 향해 설 새 없이 날아간다. 그러나 말들은 소통되지 못하고 뒹겨져 나오거나 때로는 상대방을 날카롭게 찌르는 비수가 된다. 결국, 가족들은 툼툼이 복서처럼 글러브를 끼고 한 바탕 ‘배틀’을 벌인다. 관객들은 미끄러지고 걸돌고 뒹겨 나오는 그들의 대화를 보고 들으면서 ‘가족 간의 소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연극은 곧잘 끼어드는 유머 덕에 시종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된다. 그러나 보는 이들의 마음은 가법지만은 않다. 가족 개개인의 아픔과 소통에 대한 답답함이 연기를 통해 그대로 전해지고, 공감을 통해 관객 하나하나가 현재 가족 속에서 처한 상황과 공명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부모 혹은 자녀들과 극장을 찾은 100여 명의

관객은 포럼연극이 진행되는 내내 진지하게 빠져드는 듯했다. 연극의 진행자 역할을 맡은 상담사는 연극 사이사이에 등장하여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행동을 끌어냄으로써 주위를 환기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라

연극은 각 장이 시작할 때마다 상황에 맞추어 무대 뒤 스크린을 통해 사회적 의사소통의 세 가지 방식인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상보교류’란 상대가 보내는 메시지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배려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교차 교류’는 그와 반대로 상대방의 메시지에 공감하지 못하고 차갑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이면 교류’는 말 속에 전혀 다른 속마음을 감춘 채 대화하는 것이다. 진행자는 ‘가족 간에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면 교류나 교차 교류를 극복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이라고 연극의 의의를 밝혔다.

2막의 연극이 모두 끝나고 관객들에게 ‘가장 공감이 가는 캐릭터’에 대해 묻자 엄마, 아들, 아빠, 딸의 순서로 답이 나왔다. 한 중년의 여성 관객은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에 왔는데 다시 출근하는 것 같은 기분에 공감했다”고 하고 노년의 어느 남자 관객은 “놀러갈 여유도 없었던 우리 시대의 아버지 모습이 생각나 가슴이 찡했다”고 답했다. 중학생 남자 관객이 “고민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하는 아들의 모습에 공감이 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극이 끝나자 진행자는 관객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들을 무대로 불러내어 직접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여자 중학생 관객에게는 자신이 가장 공감하는 ‘딸’ 역할을 대신 해보게 하였고, 중년의 남성 관객에게는 그가 가장 마음에 안 들어하는 캐릭터인 ‘아빠’의 역할을 해보게 하기도 했다. ‘아빠’에게 공감한다는 어느 남성 관객은 몽둥이로 의자를 치며 마음에 갇힌 말을 발산하기도 했다.

관객 이기승 씨는 ‘아들’의 역할을 맡아 대사를 해 본 뒤 중학교



관객들은 배우들의 연기를 대신해 보는 것 뿐 아니라, 여러가지 몸짓을 통해 그 동안의 감정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학생 아들과 스킨십을 하며 그 동안 못다했던 말을 나누는 관객 이기승 씨.

2학년인 아들 이세진 군을 무대로 함께 불러냈다.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눈맞춤’, ‘손맞춤’을 하며 ‘게임 시나리오 작가’라는 아들의 꿈을 들어보고 ‘사랑한다’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힘든 ‘엄마’ 역할에 공감한다는 한 여성 관객은 몸에 색색의 천을 몸에 걸고 그 천을 당기는 연극 출연진에 맞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힘들어!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감정을 발산했다.

무대에 선 관객들은 하나같이 속마음을 말할 수 있어 시원했다며 ‘앞으로 가족들과 소통의 단초를 얻었다’고 말했다.

네 가지 ‘맞춤’을 실현하는 대화법

진행자는 “자기 자신의 ‘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데 부모도 자녀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가족 개인의 욕망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행복하다”면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소통은 시작된다. 일단 갈등이 생기면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 법칙 네 가지만 지키면 성공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눈 맞춤, 두 번째 입맞춤(대화), 세 번째 손 맞춤(스킨십), 네 번째 마음 맞춤이다. 솔직한 대화와 소통으로 가족을 행복한 지지집단으로 만드시기 바란다.”고 연극을 마무리지었다.

아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 이기승 씨는 “아들이 사춘기를 맞으면서 소통이 쉽지 않아 온 가족이 함께 왔다. 소통을 위해 집에서 실천할 방법을 많이 배워가는 것 같다.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고 말했다. 아들 이세진 군은 “앞으로 소통을 거부하지 않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다고 느꼈다”면서 극장을 나섰다. 함께 어깨를 견고 걷는 가족의 모습이 이미 다정해 보였다.

보다

부평구립예술단 전국 대회 대상 휩쓸어



부평구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부평구립예술단이 잇단 전국대회 대상 수상이라는 낭보를 전해왔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은 지난해 11월 29일(일) 천안시 성환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15 제4회 전국유관순합창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인 유관순상을 수상했다. 유관순합창경연대회는 민족의 애국애족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천안음악협회 및 유관순음악제조직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다.

부평구 구립여성합창단 윤재동 지휘자는 “민족 독립운동에 앞장선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딴 합창대회에서 최고상을 받게 된 것이 영광스럽다”며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성숙된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해 9월 18일(금),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합창 페스티벌인 <2015 대교어린이TV 코러스코리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모두 7개 합창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아름다운 음색으로 ‘고향의 봄’과 ‘네모의 꿈’을 부르며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여 최고상을 거머쥐었다. 대상에게는 600만원 상금과 함께 교육부장관상 수여의 영예가 주어졌다.

부평구립예술단은 구립여성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외에도 구립풍물단까지 총 3개 예술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재)부평구문화재단의 새 동지에서 부평구립예술단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해 본다.

예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청년에담> 및 예술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에서 예술하기>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내 문화예술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예비 인력을 양성하고 이미 현장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변화하는 문화예술 동향을 공유하여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지역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가와 예술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예비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은 기획자로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동시대 예술의 흐름과 다가올 예술 동향을 살펴보는 강의로 구성하였다. 지난해에는 <청년에담>이라는 제목으로 9월 7일(월)부터 11월 23일(월)까지 총 10회 강의와 예술현장 탐방 2회로 진행되었으며 총 29명의 예비 문화예술 기획자가 참여하였다.

지역 내 예술가와 예술단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예술하기>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3월 2일(월)~3월 30일(월)까지 열렸다.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총 5회 과정으로 공연, 시각, 음악, 예술교육 등 다양한 장르의

활동가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지역문화정책, 홍보-마케팅, 재원조성 등 실용적인 주제는 물론 세계 문화예술 동향, 서울아트마켓(PAMS)을 활용한 국제 교류의 실제 사례, 예술가 간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올해도 예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프로그램(2016년 9월~10월(예정))과 예술가 및 예술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2016년 2월 29일(월)~3월 28일(월) 매주 월, 총 5회)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더불어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한 가지 더 신설된다. <연극인 재교육프로그램(3월 8일(화)~9일(수), 총 2회)>은 지역 내 연극인을 대상으로 연기적인 호흡과 화술, 무대에서의 움직임을 주제로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워크숍이다. 장르에 특화된 역량강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였으며 연극인들의 전문성 향상뿐 아니라 연극인 각자의 창작에 대한 고민과 예술 세계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구문화재단 <BP 창의경영 프로젝트> 추진



부평구문화재단의 직원 역량 강화 프로젝트인 ‘BP 창의경영 프로젝트’가 추진 2년째인 지난해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BP 창의경영 프로젝트’는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들의 급격한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신장시키고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구성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로서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등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 정보와 문화정책, 문화경영, 문화예술마케팅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특강이 열렸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제공하는 문화서비스의 터전이 되는 인천 지역의 특성 및 역사를 이해하고, 직원들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콘텐츠 탐방 운영’도 운영되었다. 이를 위해 5월~11월 총 8회에 걸쳐 직원들은 인천의 다양한 역사적 장소와 문화기관을 방문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및 팀워크 향상, 자기 개발을 위해 직원 동아리도 운영 중이다. 현재 발레 및 탁구, 배드민턴, 합창, 농구, 볼링 등 총 6개 동아리 연인원 87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성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BP 힐링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환원함으로써 따뜻한 재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봉사 활동도 운영하였다.

2009년 공연 당시 전희 매진의 신화를 이룩한
 <천변살롱>이 부평아트센터를 찾는다.
 '오빠는 풍각쟁이', '영터리 대학생' 등 서민의
 일상을 해학과 풍자로 담아낸 노래로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삶과 사랑을 그리는 공연이다.

미리보다 :

2016년 상반기 부평구문화재단이 아심차게 준비한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WHAT'S NEXT

- 01 — 2016년 새해맞이 신년 음악회
- 02 — 부키프
- 03 — 브런치 콘서트

CALENDAR

2016 상반기 기획공연 시즌패키지 묶어보는 재미, 골라보는 재미, 할인받는 재미

패키지 공연

공연명	일정	티켓가격
2016년 새해맞이 <신년음악회>	1.28(목) 20:00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화이트데이 콘서트 <데니정과 친구들>	3.12(토) 17:00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클래식 음악회 피아니스트 <손민수 리사이틀>	3.17(목) 20:00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음악극 <천변살롱>	4.8(금) 20:00 4.9(토) 14:00/18:00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브런치 콘서트 클림트, 베토벤을 만나다	4.28(목) 11:00	전석 15,000원
부평키즈페스티벌 쥬크박스 뮤지컬 <구름방>	5.1(일) 11:00/15:00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부평키즈페스티벌 창작음악극 <할라공이의 모험>	5.3(화)~5.4(수) 11:00 5.5(목)~5.8(일) 14:00	전석 15,000원
부평키즈페스티벌 키즈클래식 <악따구리 음악회>	5.7(토) 15:00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브런치 콘서트 예술, 런던을 만나다	5.26(목) 11:00	전석 15,000원

선택 패키지

패키지명	공연명	할인율
브런치 패키지	브런치콘서트 3편	총 금액의 20%
키즈 페스티벌 패키지	부평키즈페스티벌 공연 3편	총 금액의 20%
MUSIC 패키지	데니정과 친구들, 천변살롱, 손민수 리사이틀	총 금액의 30%
통합 패키지	5편 이상 구매	총 금액의 40%

이용방법

- 엔티켓 enticket 전화예매 1588-2341(온라인 예매 불가)
- 예매수수료 예매건당 1,000원 고객부담
- 예매취소 마감시간 : 구입하신 패키지의 해당 첫 공연 관람일 전일
평일 오후 5시, 토·일공연은 금요일 오후 5시
(공연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날 평일 오후 5시/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금요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적용)
- 자세한 환불규정은 엔티켓 홈페이지 참조
- 공연 일정 변경 : 해당 공연 3일전 오후 5시(3일전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오후 5시)
- 공연일정 변경 시, 해당 공연의 좌석이 매진일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웅장한 우리 가락으로 여는 2016년 신년 음악회

KBS국악관현악단이 꾸미는 품격있는 무대

부평구문화재단이 2016년을 맞아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국악인들이 꾸미는 2016년 '신년음악회'를 연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KBS 국악관현악단과 인기 국악인 송소희가 함께 아름답고도 품격있는 국악 선율을 들려 줄 예정이다. 지휘자 이준호가 이끄는 KBS국악관현악단은 1985년 창단 이래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시도와 더불어 알차고 멋진 무대를 선사해 온 우리나라 대표 국악단이다. 다양한 계층과 무대를 대상으로 한 연간 60여 회의 공연과 끊임없는 레퍼토리 확장으로 국악이 고리타분한 옛 음악이 아니라 친숙하고도 품위있는 우리의 음악적 전통임을 널리 알리고 있는 단체다.

함께 협연을 펼치는 송소희는 자타공인 최고 인기의 신세대 국악인. 어려서부터 국악에 재능을 보여 소녀 명창으로 불렸으며 CF와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다수의 팬도 확보했다. 현재 고등학생으로서 공부와 다수의 국악 공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국악소녀' 송소희는 이번 신년음악회에서 민요메들리를 들려준다.

쉽고 재미있는 선곡, 함께 하는 흥겨운 무대

이번 공연은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쉽고, 즐겁고, 재미있는 레퍼토리를 통해 시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성환 작곡의 '아리랑 환상곡'과 이경섭 작곡의 해금 협주곡 '추상', 양방언 작곡의 '프론티어', 송소희의 민요메들리, 박범훈 작곡의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 중 3악장 놀이' 등이 연주된다.

부평구문화재단의 2016년 <신년음악회>는 품격 있고 웅장한 우리 가락을 감상하며 차분하게 뜻깊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명품 공연으로 기대된다. **보다**



공연정보

일시 1월 28일(목) 오후 8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입장료 R석 3만 원 / S석 2만 원 /
시야장애석 1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포인트

전통과 퓨전을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우리 가락의
다채로움과 웅장함, 아름다움을 새삼
발견하는 기회가 될 듯

꽃보다 아름다운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 부키프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

‘복적복적 킷킷 예술과 놀자!’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어린이 페스티벌 <부키프(BUKIF)>가 올해 세 번째로 열린다. 행사는 공연과 음악회, 전시, 야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평아트센터 일대에서 펼쳐진다.

페스티벌의 막은 5월 1일(일) 뮤지컬 <할락궁이의 모험>으로 열린다. <할락궁이의 모험>은 부평문화재단에서 자체 제작한 창작음악극으로, 주인공인 할락궁이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서천꽃밭’으로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제주도 설화를 내용으로 한다. 무대 위에서 악사들이 직접 국악기를 연주하는 고품격 국악 음악극으로 한지로 만든 화려한 소품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할락궁이의 모험>은 5월 8일(일)까지 계속된다.

페스티벌 첫날인 5월 1일 어린이들이 열광하는 그림책 <구름빵>을 원작으로 한 추크박스 뮤지컬 <구름빵 시즌3>도 막을 올린다. 뮤지컬은 아름다운 영상과 화려한 플라이 기술이 더해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부평아트센터 무대를 배경으로 한 흥비와 흥시의 화려한 비상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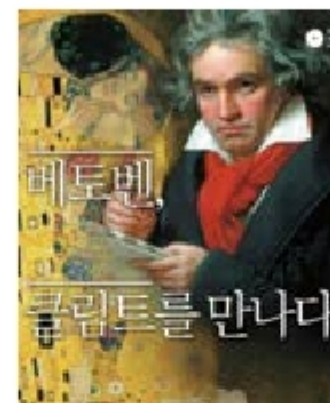
올해는 키즈 테라피 에듀콘서트 <딱따구리 음악회>도 진행된다. 5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열리는 음악회에서는 동물친구들이 마림바, 실로폰, 팀파니, 차임벨 등을 신나게 연주하여 어린이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딱따구리 음악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명, 동화책 같은 예쁜 무대 구성이 더해져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개발하는 특별한 음악회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부평아트센터 일대에서 ‘부키프초록누리 축제’가 펼쳐진다. 다채로운 무료 공연은 물론 다양한 체험거리, 보물찾기 등 흥미로운 이벤트가 하루 종일 이어질 예정. 어린이는 물론 가족 모두를 위한 잊지 못할 추억 만들기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행사정보

일시 5월 1일(일) ~ 5월 8일(일)
장소 부평아트센터 일대
관람연령 전 연령
관람포인트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예술 축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웃고 즐기다 보면 어린이들의 상상력도 가족의 행복도 쑥쑥! 자랄 듯.

커피 한 잔과 함께! 브런치 콘서트



바쁘고 메마른 일상의 오아시스 같은 콘서트

예술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부평아트센터의 대표 공연, <브런치 콘서트>가 ‘음악, 예술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올해도 계속된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열리는 <브런치 콘서트>는 예술을 사랑하는 부평구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문학과 미술 등 다른 장르의 예술과 영감을 주고받았던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친절한 해설을 곁들여 클래식 음악과 친밀감을 높이는 인기 콘서트다.

2016년 상반기 브런치 콘서트의 문은 4월 28일(목) ‘클림트, 베토벤을 만나다’가 연다.

18세기 말, 그 시대 모든 이들의 귀를 흥치고 심장을 뛰게 한 베토벤, 그리고 찬란한 황금빛 색채로 보는 이의 마음을 매혹시킨 클림트의 운명적 만남이 음악으로 펼쳐진다. 베토벤의 ‘로망스 2번’, ‘피아노 3중주’, ‘피아노 소나타 8번’ 등을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공연은 ‘예술, 런던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5월 26일(목) 열리는 이 공연은 셰익스피어로부터 조앤 롤링으로 이어지는 영국 문학의 힘과 영국의 예술 세계를 음악으로 짚어보는 콘서트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존 루터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고풍스러운 모음곡’ 등이 연주된다.

상반기 마지막 콘서트는 6월 30일(목)에 열리는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다’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일본 대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두 거장의 작품에 얹힌 음악과 그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드뷔시의 ‘달빛’, 히사이시 조의 ‘인생의 회전목마’ 등의 음악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공연이 끝나면 커피와 머핀을 제공하는 따뜻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보다**

행사정보

일시 4월 28일(목), 5월 26일(목), 6월 30일(목)
오전 11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입장료 전 석 1만 5천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포인트
이만한 퀄리티의 콘서트를 이정도 입장료로 즐길 수 있다니! 주부들끼리 품격있는 브런치 모임 코스로도 강추!

2016

1

January

- 기획공연·축제
- 기획전시
- 예술교육·예술지원
- 부평·부개문화사랑방 공연
- 부평·부개문화사랑방 교육

1/28



KBS 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2016 새해맞이 신년음악회!

한국을 대표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이 2016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쉽고, 즐겁고, 재미있는 레퍼토리를 통해 시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국악 관현악곡들로 선별하여 들려준다. 최성환 작곡의 '아리랑 환상곡'과 이경섭 작곡의 해금 협주곡 '추상', 양방언 작곡의 '프론티어', 국악소녀 송소희의 민요메들리, 박범훈 작곡의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 중 3악장 놀이' 등으로 웅장하게 새해를 맞이한다.

프로그램

1. 국악관현악 — '아리랑 환상곡'
2. 해금 협주곡 — '추상'
3. 국악관현악 — '프론티어'
4. 소금 협주곡 — 영화 미션 OST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5. 소금 협주곡 — 'Morning'
6. 'Sound of Peace', '비나리'
7. 민요 — '태평가', '매화타령'
8.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 중 3악장 놀이'

기간 1월 28일(목) 오후 8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3만 원 / S석 2만 원 /
시야장애석 1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8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부평구문화재단 전화예매
안내 032-500-2000

2016

2

February

- 기획공연·축제
- 기획전시
- 예술교육·예술지원
- 부평·부개문화사랑방 공연
- 부평·부개문화사랑방 교육

2/29 ~ 3/28



예술가 및 예술단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지역에서 예술하기>

지역 내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역량강화 아카데미는 재원 조성, 홍보·마케팅 등 현실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이 상대적으로 도외시하는 부분을 강화하여 기초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기간 2월 29일~3월 28일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 총 5회 과정
장소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
참가비 무료
대상 지역 내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교육시간 회 당 3시간
신청 및 접수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안내 032-500-2073

2/27 ~ 7/9



어린이 연극학교

종합예술인 연극을 통해 어린이들의 표현력과 상상력을 증대시키고, 발표공연 만들기 과정을 통해 작은 사회를 경험해보면서 사회성과 인성을 고루 개발할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간 2월 27일~7월 9일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 총 20회 과정
장소 부평아트센터 대연습실
참가비 20만 원
대상 초등학교 2~6학년 어린이
교육시간 회 당 2시간
신청 및 접수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안내 032-500-2073

2016

3

March

- 기획공연·축제
- 기획전시
- 예술교육·예술지원
- 부평·부평문화사랑방 공연
- 부평·부평문화사랑방 교육

3/10 ~ 6/2



유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공따리 오르프』

독일 음악가 '칼 오르프'의 이론을 기반으로 노래, 악기연주, 신체표현 등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되어 유아와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음악교육프로그램

기간 3월 10일 ~ 6월 2일
매주 목요일 10:30~11: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참가비 6만 원
대상 4, 5세 유아와 엄마(또는 아빠) 10쌍
교육시간 60분
신청 및 접수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2월 중 예정)
문의 032-505-5951

3/12

한국인 최초 빌보드 차트에 오른 섹소포니스트 대니정!



앨범마다 감미롭고 빼어난 연주로 대중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대니정은 대중음악과 클래식 장르를 넘나들고 서태지, 조수미 등 협연하며 폭 넓은 음악세계를 선보였다.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였고, 한국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미국 현지음반사와 계약하여 미국 및 캐나다 전역에서 앨범을 발매하고 빌보드 상위에 랭크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니정이 부평아트센터에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공연을 선사한다.

기간 3월 12일(토) 오후 5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 S석 3만 원 /
시아장애석 2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8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부평구문화재단 전화예매
안내 032-500-2000

3/17



음악 안에서 삶을 창조하고 청중을 사로잡으며 음악으로 보답하는 예술가,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무대

2015년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로 초빙되어 한국에 돌아온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국내 첫 리사이틀 무대.
이번 공연은 특별히 해외 언론에서 호평을 받은 그의 메인 레퍼토리인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과 '브람스, 헨델 변주곡'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다. 20년만의 전국투어 리사이틀을 준비하면서 그 의미 있는 첫 무대를 부평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기간 3월 17일(목) 오후 8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3만 원 / S석 2만 원 /
시아장애석 1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8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부평구문화재단 전화예매
안내 032-500-2000

3/8 3/9

연극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연극인을 대상으로 신체 움직임 및 호흡, 화술 등의 워크숍 진행

기간 3월 8일(화)~9일(수) 오후 2시~6시 / 총 2회 과정
장소 부평아트센터 대연습실
참가비 무료
대상 지역 내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연극인
교육시간 회 당 4시간
신청 및 접수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안내 032-500-2073

3/12 ~ 5/7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합창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가 세대를 넘어 음악과 재미있는 움직임(안무)을 통해 함께하고,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간 3월 12일~5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 /
총 10회 과정
장소 부평아트센터 중연습실
참가비 무료
대상 2인 이상의 가족(초등학생 이상)
교육시간/진행시간 회 당 3시간
신청 및 접수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안내 032-500-2073

3/10 ~ 4/3



2016 부평작가발전—고향의 봄

지역을 위한, 지역작가들에 의해 마련되고 진행되는 예술 생태계로서의 지역을 바라보고자 하는 지역미술활성화 프로젝트 전시이다. 부평작가발전 세 번째 프로젝트 전시로서 '고향의 봄'이라는 주제 아래 보다 다양한 맥락의 기획과 부단한 현장의 고민을 담아 소통하고자 한다.
3월 10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열리는 전시 오프닝 행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간 3월 10일(목) 오전 10시~4월 3일(일) 오후 6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안내 032-500-2000/ 2072

2016

4

April

- 기획공연·축제
- 기획전시
- 예술교육·예술지원
- 부평·부개문화사랑방 공연
- 부평·부개문화사랑방 교육

4/8 4/9

우수공연 <천변살롱>

암울했던 1930년대 경성,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모이던 천변살롱
살롱에서 1930년대의 향수, 만요(漫謔)를 부른다.



2009년 공연 당시 독특한 음악기획시리즈로 모든 회
매진을 기록하였던 <천변살롱>을 부평아트센터에서
만난다. 1930년대 대중음악 장르의 하나였던 만요는,
주류를 이루던 트로트나 신민요와 달리 일상생활의
소소한 내용을 자유로운 가사에 담아냈다. 천변살롱은
'오빠는 풍각쟁이', '영터리 대학생', '왕서방 연서' 등 당시
억압된 식민지 사회를 뒤돌아 풍자에 대중들의 인기를
얻은 만요들을 중심으로 극적 요소를 더한 음악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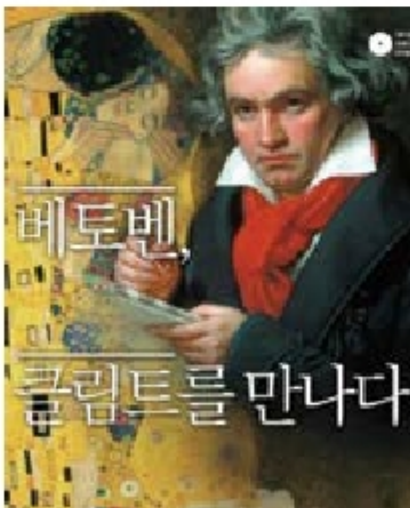
기간 4월 8일(금) 오후 8시
4월 9일(토) 오후 2시, 오후 6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 석 1만 5천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9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부평구문화재단 전화예매
안내 032-500-2000

4/28

2016년 부평아트센터 상반기 <브런치 콘서트> '음악, 예술과 만나다'

— 클림트, 베토벤을 만나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11시에 만나는 부평아트센터의 대표 콘서트, 예술을 통해 영감과 영향을 받았던
음악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시간!



18세기 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듣는 이의 귀를
흥치고 심장을 뛰게 한 베토벤.
찬란한 황금빛 색채로 보는 이의 마음을 매혹시킨
클림트. 이 둘의 운명적인 만남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 베토벤 '로망스 2번', '피아노 3중주
대공', '피아노 소나타 8번' 외

기간 4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 석 1만 5천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7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부평구문화재단 전화예매
안내 032-500-2000

4/2 ~ 5/28

사진미학 프로그램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작품 감상과
사진 촬영 기법을 배우보는 성인대상 프로그램

기간 4월 2일 ~ 5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 총 8회 과정
장소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
참가비 5만 원
대상 성인
교육시간 회 당 2시간
신청 및 접수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신청
안내 032-500-2073

4/21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의 17번째 정기연주회로
'아빠'를 테마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합창으로
선보인다.

기간 4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 9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극장
관람료 전 석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9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예약(예정)
안내 032-500-2074

4/28 ~ 5/29

**얼굴을 부각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이다. 현대미술 작가들의
얼굴을 표현하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작품들로 재미있고 친근한 미술관에서의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기간 4월 28일(목) 오전 10시 ~ 5월 29일(일) 오후 6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안내 032-500-2000/ 2072

4/4 ~ 6/27

**어린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랑방 인형극단>**

초등학생이 이야기와 오브제를 직접 만들어 발표하는 인형극
프로그램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를 통한 수준 높은 인형과 극 제작으로
실제 무대 위 공연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

기간 4월 4일 ~ 6월 27일 매주 월요일 (시간은 추후 공지)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참가비 12만 원(12회)
대상 초등학교 1 ~ 6학년(선착순 12명)
교육시간 회 당 2시간
신청 및 접수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3월 중 예정)
문의 032-505-5951

2016

5

May

- 기획공연·축제
- 기획전시
- 예술교육·예술지원
- 부평·부평문화사랑방 공연
- 부평·부평문화사랑방 교육

5/3

~

5/8

2016 제3회 부평키즈페스티벌 어린이 국악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
 생생한 음악이 함께하는 명품 어린이 국악음악극
 대나무, 부채 등을 활용한 이색적인 무대!



부평구문화재단이 제주도 신화를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어린이 국악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 신화 속 주인공 '할락궁이'가 가족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애와 우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공연이다.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병훈 연출,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를 비롯한 수많은 히트작을 내놓은 오은희 작가, KBS 국악대상 수상에 빛나는 신동일 작곡가 등 최고의 스태프가 함께한 <할락궁이의 모험>은 명품 어린이 음악 공연으로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무대 위에서 악사들이 직접 국악기를 연주하여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유의 악기소리를 들려주는 동시에, 한지로 만든 의상과 소품 등 화려한 볼거리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부평키즈페스티벌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기간 5월 3일(화) ~ 5월 4일(수) 오전 11시 /
 5월 5일(목) ~ 5월 8일(일) 오후 2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 석 1만 5천 원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러닝타임 6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부평구문화재단 전화예매
 안내 032-500-2000

5/3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춤추는 사랑방 '뽕츨 뽕!'>

낮설고 어려운 것 같은 춤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누구나 쉽게 즐기고 움직일 수 있도록 탭댄스의 기초부터 안무까지 지속적으로 익혀 무대 발표로 마무리하는 프로그램.

기간 5월 3일 ~ 7월 19일 매주 화요일
 (시간은 추후 공지)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참가비 12만 원(12회) ※ 탭슈즈 별도 구매

대상 성인반: 성인 / 초등반: 초등학교 1 ~ 6학년
 (각 반 선착순 12명)

교육시간 성인반: 회 당 90분 / 초등반: 회 당 60분

신청 및 접수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4월 중 예정)
 문의 032-505-5951

5/1

2016 제3회 부평키즈페스티벌 뮤즈박스 뮤지컬 <구름빵 시즌 3>



아름다운 영상과 화려한 플라이 기술이 결합된 뛰어난 작품성으로 매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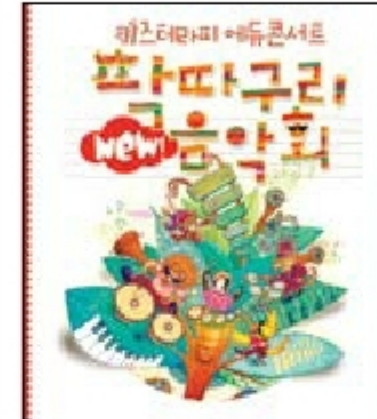
따뜻한 가족사랑 이야기에 애니메이션 속 새로운 캐릭터와 사랑스런 에피소드, 짜릿한 플라이 기술이 더해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익숙한 김성균의 동요가 어우러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부평아트센터로 화려하게 날아오는 흥비, 흥시 남매의 새로운 모험을 기대해보자.

기간 5월 1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2만 원 / S석 1만 5천 원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러닝타임 7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부평구문화재단 전화예매
 안내 032-500-2000

5/7

2016 제3회 부평키즈페스티벌 키즈 테라피 에듀콘서트 <딱따구리 음악회>
 지루할 틈이 없는 신나는 콘서트!
 고품격 어린이 타악 음악회



음악회는 정적일 것이라는 거부감 없이 마림바, 실로폰, 팀파니, 차임벨 등등의 타악기로 신나는 비트와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명, 동화책 같은 예쁜 무대 구성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 개발과 교양에 도움이 된다! 음악회를 통해 타악기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연주에 참여를 하며 EQ향상에 도움을 주는 딱따구리 음악회. 타악기의 특성인 신나는 비트를 통한 연주와 동물 친구들의 퍼포먼스들이 어우러져 24개월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다.

기간 5월 7일(토) 오후 3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2만 원 /
 S석 1만 5천 원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러닝타임 7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부평구문화재단 전화예매
 안내 032-500-2000

5/1

~

5/8



2016년 부평 키즈 페스티벌

어린이와 온가족이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
 어린이가 가장 행복한 날인 5월 5일!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즐기는 신나는 소풍

기간 페스티벌 기간 5월 1일(월) ~ 5월 8일(일)
 부키프 초록누리 축제 5월 5일(목)

오후 1시 ~ 오후 6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구름마당

참가비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신청 및 접수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부평구문화재단 전화예매

안내 032-500-2000

5/26

2016년 부평아트센터 상반기 <브런치 콘서트> '음악, 예술과 만나다' — 예술, 런던을 만나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11시에 만나는
 부평아트센터의 대표 콘서트, 예술을 통해 영감과
 영향을 받았던 음악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시간!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시인이자 극작가 셰익스피어부터 해리포터까지 이어지는 영국 문학의 힘과 영국을 지명하는 힘의 원천을 찾아 떠나는 아르츠 콘서트. 미술, 건축, 음악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예술콘서트

프로그램 I 엘가 '사랑의 인사', 재클린 '눈물', 존 루터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고풍스러운 모음곡' 외

기간 5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 석 1만 5천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7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부평구문화재단 전화예매
 안내 032-500-2000

2016

6

June

- 기획공연·축제
- 기획전시
- 예술교육·예술지원
- 부평·부평문화사랑방 공연
- 부평·부평문화사랑방 교육

6/16

인천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2016 라이징스타>
— 신인음악회



인천에서 나고 자란 유망 예술가들의 무대.
'라이징 스타' 피아니스트·바이올리니스트·성악가로 선정된
젊은 예술가의 다양한 무대.
인천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기간 6월 16일(목) 오후 8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관람연령 13세 이상
러닝타임 8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부평구문화재단 전화예매
안내 032-500-2000

6/30

2016년 부평아트센터 상반기 <브런치
콘서트> '음악, 예술과 만나다'
—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11시에 만나는
부평아트센터의 대표 콘서트, 예술을 통해 영감과
영향을 받았던 음악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시간!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두 거장의 작품들의 감성과 이야기를 음악으로
감성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 I 슈만 '트로이메라이', 드뷔시 '달빛',
하사이시조 '인생의 회전목마', 아시타가의 '전설',
'1920 에이지 오브 일루전', '이노센트' 외

기간 6월 30일(목) 오전 11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7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부평구문화재단 전화예매
안내 032-500-2000

6/18

8/28



어린이체험전시 '우당탕탕 아빠가 만든
놀이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감성놀이체험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전시이다.
매해 예술과 교육을 접목시킨 신나는 다양한
체험전시를 통해 특별한 즐길거리를 선물한
부평구문화재단이 올해 준비한 최고의
체험전시프로그램.

기간 6월 18일(토)~8월 28일(일)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참가비 1만 7천 원(어린이), 1만 2천 원(어른)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신청 및 접수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부평구문화재단 전화예매
안내 032-500-2000 / 2072

꿈을 나누는 행복 문화드

문화예술기부의 확산

-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와 가치 확대
- 지역민과 예술가들이 문화예술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강화
- 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문화예술기부 지지 여론 확대

지역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사업 추진

- 지역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 지역민과 문화재단이 함께 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
-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재원조성 기반 마련

-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 조성
- 문화재단의 자생력 확보로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

기부사업영역

부평구문화재단이 추구하는

문화예술기부는

모두 함께 꿈을 꾸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든든한 후원 후원회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동반자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 후원회 신청방법

01 후원회원 가입절차



02 후원회원 가입방법

- 방문신청 :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우편신청 :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내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03 후원회 신청문의

032-500-2031

○ 후원회원 등급 및 예우

기본 예우	· 홈페이지 후원자 · 기업명 표기 · 홈페이지 후원회 페이지 운영 (소식 업데이트) · 대극장 로비 벽면 회원 명판 부착 · 후원회카드 발행 · 레스토랑(설레임) 이용권 (후원회 카드 제시 : 식사권 혹은 할인적용)	
	해누리(5천만원)	평생회원
기업 · 개인	·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2회)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후원자 · 기업명 표기 ·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2회)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4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50%)	
	달누리 (2천만원)	평생회원
기업 · 개인	·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1회)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3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후원자 · 기업명 표기 ·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1회)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3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40%)	
	꽃누리 (1천만원)	평생회원
기업 · 개인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2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후원자 · 기업명 표기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2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30%)	
	별누리 (5백만원)	평생회원
기업 · 개인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구름 (3백만원)	5년
기업 · 개인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뫼 (1백만원)	5년
개인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6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20%)	
	가람 (5십만원)	3년
개인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아름다운 참여 시민회원(CMS)

○ 시민회원(CMS) 약정안내

약정금액

월단위 약정 금액
1구좌 5,000원, 5구좌까지 가능
기타 희망금액 약정 가능

지정내용

기부금 사용을 부평구문화재단에 일임하여,
별도 조건없이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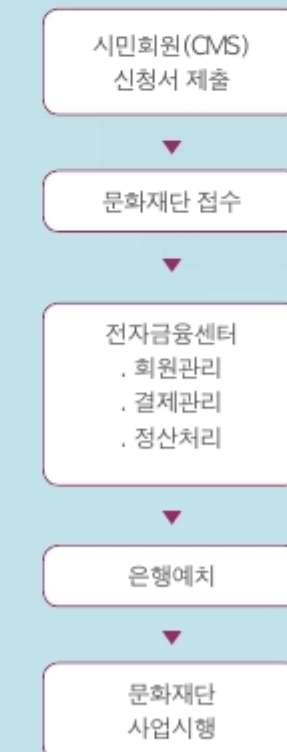
관련문의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032-500-2031

기부자 예우

- 연례보고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 정기간행물과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개
(비공개로 신청하실 수 있음)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20~30% 할인

○ CMS 운영절차



함께하는 행복 클라우드 펀딩

예술가들은 창작을 위한 기금!
시민들에게는 함께하는 기쁨!

- 부평구문화재단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창작 프로젝트
- 지역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의적인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소액다건 클라우드 펀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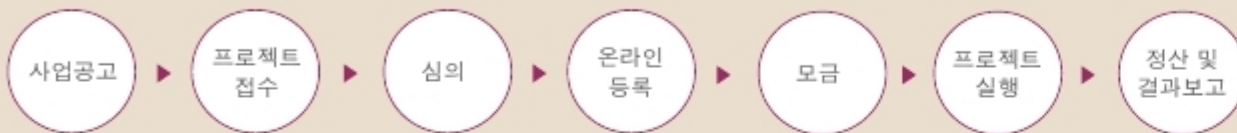
신청대상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

지원방식

프로젝트에 필요한 총 예산의 50%를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모금,
나머지 50%는 문화재단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지원

진행절차



* 클라우드 펀딩 사업은 문화드림 사업 시행을 통해 일정 기부금을 확보한 후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공식적인 광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튼튼한 후원 부평구문화재단후원회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부평구문화재단과 부평아트센터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합니다. '모두 함께 나누는 예술'을 지향하며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동반자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후원해주시는 분들

꽃누리	서달문 인천형기 대표 최도현 대한인물(주) 대표이사 노태순 성크빅문고 대표	성낙경 (주)한발기술 대표이사 서태호 (주)난다 고문 김영무 (주)하온아텍 대표이사	이희재 (주)우성아이비 대표이사 정규형 의료법인 한길안과병원 이사장 이경환 (주)비에이치 대표이사
별누리	홍종국 삼산월드컨벤션센터 대표 박홍식 부평역사(주) 대표이사 함국중 부원산업(주) 대표	최주송 (주)대경아이스 대표 이광복 동서식품(주) 대표이사 배정태 더퍼이스샵 대표	김용택 은세계교회 GVC 목사
구름	박인덕 (주)상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석범 인그리디언코리아 유한회사 이사 조각형 (주)승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효배 북구환경(주) 대표이사 전봉운 부평환경(주) 대표이사 한재현 동일환경(주) 대표이사	안용현 한국그린환경(주) 대표이사 민병현 (주)평화환경 대표이사 권영조 (주)영메디칼바이오 대표이사 정혜자 (주)삼원환경 대표이사
외	이승희 (주)두진금형 대표이사 맹익재 클라이젠(주) 대표이사	허난영 (재)세종문화회관 팀장 이혜민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가람	신희식 아침을 여는 사람들 대표 윤대기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 최창석 은성산업(주) 대표 권복한 1급부평자동차공업사 대표 안종명 정수미크론 대표	신종백 십정1동 주민자치위원장 심수현 부개3동 주민자치위원장 조정애 박영옥 삼우환경 대표 오종석 한국통은(주) 대표이사	한유순 광원아트홀 원장 정지연 광원건설 대표 강경애 리디안우쿨렐레오케스트라 단장 이계찬 지인조경(주) 대표이사 김유환 관세법인 사인 관세사 황명희 가현텍스 대표세무사